

신약
6

BELIEVER'S BIBLE COMMENTARY
ROMANS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로마서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로마서

정 병 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ROMANS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5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신약 성경 개론	13
로마서	21
로마서 서론	22
1.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의 복음(1-8장)	29
(1) 복음에 대한 소개(1:1-15) / 29	
(2) 복음의 정의(1:16,17) / 35	
(3) 복음에 대한 우주적인 필요(1:18-3:20) / 37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의 운명은	44
(4) 복음의 기초와 수단(3:21-31) / 64	
죄에 대한 소고	66
(5) 복음과 구약성경과의 조화(4장) / 77	
(6) 복음의 실질적인 혜택(5:1-11) / 89	
(7) 아담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승리(5:12-21) / 95	
(8) 거룩한 삶에 이르는 복음의 방법(6장) / 102	
(9)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율법의 위치(7장) / 115	
(10)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으로서의 성령(8장) / 127	

2. 세대(경륜)적인 부분: 복음과 이스라엘(9-11장)	147
(1) 이스라엘의 과거(9장) / 147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147
(2) 이스라엘의 현재(10장) / 164	
(3) 이스라엘의 미래(11장) / 174	
3. 의무적인 부분: 복음과 삶(12-16장)	189
(1) 개인적인 성결에 있어서(12:1-2) / 189	
(2) 신령한 은사를 통한 섬김에 있어서(12:3-8) / 191	
(3)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12:9-21) / 195	
(4)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13:1-7) / 200	
(5) 미래와의 관계에 있어서(13:8-14) / 204	
(6)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14:1-15:13) / 208	
(7) 바울의 계획에 있어서(15:14-33) / 220	
(8) 다른 이들에 대한 감사와 인정에 있어서(16장) / 225	
참고 문헌	233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친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헛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둬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덴에서 동이 뜨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타이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낫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분(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숙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r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로마서

로마서 서론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大聖殿)”—프레드릭 고딕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로마서는 항상 바울 서신의 첫 머리에 위치해 왔으며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사도행전이 바울의 로마 도착과 함께 끝나므로 신약성경의 서신 부분을, 그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기 전에 기록된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의 서신과 함께 시작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겠다. 보다 결정적으로, 로마서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으로서 기독교 신학을 하나님 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대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14절을 읽다가 회심을 했다(A.D. 380).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義)의 의미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시작되었다(1517년).

요한 웨슬레는 런던 엘더스게이트 가(街)에 위치한 한 모라비안 교도의 집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 읽혀지는 것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1738년). 요한 칼빈은 “누구든 이 서신을 깨

닫는 사람은 전체 성경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통로를 소유한 셈이다”라고 썼다.

2. 기자

이단과 심지어 매우 부정적인 비평가들도 이 경우만은 정통주의의 입장, 즉 로마서의 기자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사실, 이단자 마르씨온이 바울을 기자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알려진 작가이다. 로마서는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마터, 폴리갑, 힌폴리투스, 이레니우스 등과 같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인용된다. “무라토리 정경”(Muratorian Canon)도 이 서신을 바울의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바울 저작권의 “내증”(內證) 또한 매우 강력하다. 그 신학과 어휘와 정신(spirit) 모두 현저히 바울의 것이다. 물론, 그것이 바울의 것이라고 서신 자체가 말하고 있다는(1:1) 사실로는 회의론자들을 설득시키기에 충분치 못하나, 그 사실은 15장 15-20절 등과 같은 다른 참조 구절들에 의해 더욱 확증된다. 가장 설득력 있는 요소는 아마도 본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듯한 흔적이 없는 바, 사도행전과 일치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성도들을 위한 연보,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고 로마에로의 계획된 긴 여행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들이 바울이 기자임을 시사해 준다. 더디오는 그의 대필자였다(16:22).

3. 연대

로마서는 고린도전후서 후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그 두 서신이 기록될 당시 모아지던 연보가 이제 준비되어 곧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해지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동편의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 대한 언급과 그밖에 세부적인 언급들은 대부분 학자들로 하여금 고린도를 기록 장소로 추정하게 만든다. 바울이 그에 대한 음모 때문에 쫓겨날 때까지 석 달간만(3차 전도 여행 말기에) 그곳에 있었으므로 이 서신이 기록된 것은 분명 그 짧은 기간 동안이었을 것이다. 이로 볼 때 그 연대는 A.D 56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배경 및 주제

어떻게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 전파되었을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행 2: 10)이 복음을 로마에 가지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때는 A.D 30년경이었다.

바울은 그 후로 약 26년이 지나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쓸 당시 로마에 전혀 간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결과이든 복음의 전령자이든 혹은 직업상의 사유로든 이곳저곳 이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이방의 두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바울은 A.D 60년경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으나 그가 기대하던 방법으로는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수의 몸으로 간 것이다.

로마서는 훌륭한 저작이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범죄한, 잃어버린 상태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에 대한 명료한 해설을 제시해 준다. 새로 믿은 신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승리에 대해 알게 된다. 성숙한 신자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그 폭넓은 면모(spectrum, 교리적, 예언적, 실천적) 안에서 끊임 줄 모르는 기쁨을 발견한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바울과 어떤 역명의 대상간의 대화로 보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진술하는 동안 그 상대방이 복음에 반(反)하는 온갖 종류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듣는 듯하다. 사도는 그 반대자의 질문에 하나씩 하나씩 답변한다. 그것이 끝날 즈음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주요한 태도에 관해 답변을 끝내게 된다.

그 이의(異議)들은 때로는 분명히 진술되지만 때로는 암시되지만 한다. 그러나 진술되든 암시되든 그것들은 모두 복음(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는 로마서를 다음과 같은 열한 가지 주요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 (1) 서신의 주제는 무엇인가?(1:1,9,15,16).
- (2) 복음이란 무엇인가?(1:1-17).
- (3) 왜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가?(1:18-3:20).
- (4) 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불경건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가?(3:21-31).
- (5) 복음은 구약성경과 일치하는가?(4:1-25).

- (6) 신자의 삶에 있어 칭의(稱義)의 혜택은 무엇인가?(5:1-21).
- (7)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죄악된 삶을 허용 내지 권장하는가?(6:1-23).
- (8)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7:1-25).
- (9)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부여받는가?(8:1-39).
- (10)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상 백성인 유대인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9:1-11:36).
- (11)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12:1-16:27).

이 열한 가지 질문과 그 해답을 숙지하는 것은 이 중요한 서신에 대한 역동적인 지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복음”이다. 바울은 요점을 밝히는데 있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처음 16구절에서 네 번이나 그 점을 언급한다(1,9,15,16절).

이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둘째 질문을 야기시킨다. 그 단어 자체는 “좋은 소식”이란 뜻이다. 그러나 1-17절에서 사도는 그 좋은 소식에 관한 여섯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 (1) 그 근원은 하나님이다(1절).
- (2)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약속되었다(2절).
- (3)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3절).
- (4) 그것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16절).
- (5)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16절).

(6) 그것은 믿음으로만 얻어진다(17절).

이 정도의 서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들어가기로 하자.

5. 개요

1. 교리적인 부분-하나님의 복음(1-8장)

- (1) 복음에 대한 소개(1:1-15)
- (2) 복음의 정의(1:16-17)
- (3) 복음에 대한 우주적인 필요(1:18-3:20)
- (4) 복음의 기초와 수단(3:21-31)
- (5) 복음과 구약성경과의 조화(4장)
- (6) 복음의 실질적인 혜택(5:1-11)
- (7) 아담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승리(5:12-21)
- (8) 거룩한 삶에 이르는 복음의 방법(6장)
- (9)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율법의 위치(7장)
- (10)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으로써의 성령(8장)

2. 세대(경륜)적인 부분-복음과 이스라엘(9-11장)

- (1) 이스라엘의 과거(9장)
- (2) 이스라엘의 현재(10장)
- (3) 이스라엘의 미래(11장)

3. 의무적인 부분-복음과 삶(12-16장)

- (1) 개인적인 성결에 있어서(12:1-2)

- (2) 신령한 은사를 통한 섬김에 있어서(12:3-8)
- (3)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12:9-21)
- (4)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13:1-7)
- (5) 미래와의 관계에 있어서(13:8-14)
- (6)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14:1-15:13)
- (7) 바울의 계획에 있어서(15:14-33)
- (8) 다른 이들에 대한 감사와 인정에 있어서(16장)

1.

교리적인 부분-하나님의 복음(1장-8장)

1. 복음에 대한 소개(1:1-15)

1:1 바울은 자신을 사신 바 되고(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칭호에 암시됨), 부름 받고(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즉 구주의 특별한 사신으로 부름 받았음), 그리고 구별된(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구별됨) 자로 소개한다(행 9:15; 13:2).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바 되었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구별되었다.

1:2 그의 유대인 독자들 중 아무도 복음을 완전히 새롭고 또 그들의 영적인 유산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분명한 진술(신 18:15; 사 7:14; 합 2:4) 및 상징과 모형(예; 노아의 방주, 구리뱀, 제사)으로 그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한다.

1:3 복음은 육신으로는(즉, 그분의 인성에 관한)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육신으로는”이란 표현은 우리 주님이 인간 이상이심을 암시한다. 그 문

구는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인간이시라면 다른 특징은 없으므로 그분의 존재의 이러한 특징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보여주듯이 그분은 인간 이상이다.

1:4 주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 여기서 성결의 영¹⁾이라고 부른 성령께서 그분의 세례와 기적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입증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구주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의해”이며, 따라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의 부활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임이 거의 분명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신자는 그분의 아들들이다(갈 4:5-7). 천사들조차도 아들들로 언급된다(욥 1:6; 2:1).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이해했다(요 5:18).

1:5 바울이 은혜(그를 구원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였다. “우리

1) (1:4) 어떤 주석가들은 “성결의 영”을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존재, 즉 그분 자신의 인성(human spirit)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할 때 바울은 “우리”를 그 자신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사도의 직분을 이방인과 관련시켜 말한 것은 다른 사도들이 아닌 그를 가리킨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 메시지에 순종케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행 20:21).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었다.

1:6 복음에 반응한 자들 중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영예를 더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구원에 있어 주도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었음을 강조해 준다.

1:7 이 서신은 다른 서신들처럼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졌다. 서신의 마지막 장은 그 도시에 신자들의 여러 모임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데 이 인사말은 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 두 아름다운 표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이들 은총을 입은 자들은 특별한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란 칭호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특징적인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을 결합시킨다. “은혜”(κ^αρις)는 헬라어의 강조어이며 “평강”(שלום)은 전통적인 유대식 인사말이다. 이 둘의 결합은,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게 믿는 유대인과 이

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까닭에 특히 적절하다.

여기에 언급된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바울의 독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를 위해 구비케 하고 능력을 주는 은혜이다. “평강”(혹은 “화평”-역주)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으므로 이미 그런 화평을 소유한 상태이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심령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한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데 이는 성자와 성부의 동등함을 강하게 암시해 준다. 만일 예수께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분을 은혜와 평강을 수여하는데 있어 성부와 동등하게 언급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브라함 링컨으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1:8 사도는 가능하면 가급적 독자들의 칭찬할 만한 점에 대해 감사를 포함하여 그의 서신을 시작했다(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이 되어준다). 여기서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데 대해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은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살던 이들이 보기에 “온 세상”을 형성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다.

1:9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한 까닭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픈 마음의 짐을 느꼈다. 그는 다른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그의 끊이지

않는 기도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곧 사도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심령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바울의 섬김은 그의 심령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그것은 의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되풀이되는 섬김이 아니었다. 그것은 뜨거운 믿음의 기도로 가득 채워진 섬김이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심령으로 불이 붙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섬김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었다.

1:10 로마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그들을 방문하기를 바라는 그의 기도와 짝을 이루었다.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여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뤄지기를 원했다.

1:11 사도의 간절한 바람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세움을 입도록 영적으로 큰 도움을 베풀어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그가 어떤 “2차적인 축복”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나, 안수함으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는(비록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보듯이 디모데를 위해서는 그렇게 행했지만) 의미는 일절 없다. 그것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문제였다.

1:12 그는 나아가서 상호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 그들은 그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덕이 되는 사귄 가운데는 영적인 풍요케 함이

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 27:17). 바울의 겸손과 은혜로움을 보라.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입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1:13 그는 종종 로마를 방문하기로 계획했었으나 아마도 다른 지역의 절박한 필요로 인해, 아마도 성령의 직접적인 제지로 인해, 아마도 사단의 저지로 인해 방해를 받아왔다. 그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그러했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했다. 여기서 그는 이어지는 두 구절이 보여주듯이 복음 안에서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 11-12절에서는 그의 목적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세움을 입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고 있다.

1:14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가장 절실한 필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죄의 질병에 대한 치료책과, 지옥의 영원한 두려움을 피하는 길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를 모든 문명에 속한 사람들(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과 모든 수준의 학식에 속한 사람들(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엄숙한 책임 하에 놓이게 한다. 바울은 그 책임을 예민하게 느꼈다. “내가 빛진 자리”고 그는 고백했다.

1:15 그 빛을 갠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그것은 본절

이 암시하듯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확실히 아니었는데, 이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 대상은 그 대도시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다.

2. 복음의 정의(1:16-17)

1:16 바울은 비록 그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시기를 말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미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한 순서는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기간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옛 백성인 유대인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가지는 반면, 이방인에게 가기 전에 꼭 유대인을 복음화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기초에서 다루시며, 그 메시지와 시간적인 요소(timing)가 두 부류 모두에게 동일하다.

1:17 여기에 “의”라는 단어가 본 서신에서 처음으로 나오므로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용례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그것은 올바르고 공의롭고 합당하고 또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과 일치되는 것을 항상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에게는 아무 잘못이나 부정직함이나 불공평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義)는 불경건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가리킬 수 있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고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으신데, 이는 죄 없으신 대속물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케 하셨기 때문이다.

끝으로, 하나님의 의(義)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신분을 가리킨다(고후 5:21). 스스로는 의롭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완전하심 안에서 그들을 보시는 까닭에 의로운 자처럼 대우를 받는다. 의(義)가 그들의 것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면 17절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셋 중 어느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義)는 특히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가리키는 듯하다.

하나님의 의(義)는 복음 안에서 계시된다. 우선 복음은, 하나님의 의(義)가 죄인은 처벌될 것을 요구하며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의(義)가 요구하는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분은 아들을 보내어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죽게 하사 그 형벌을 완전히 치르게 하셨다. 이제 그분의 의로운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義)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 (1)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 (2) 어느 수준의 믿음에서 다른 수준의 믿음으로;
- (3)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등의 세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아마 세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로 보인다. 하나님의 의(義)는 행위를 근거로 전가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로로 그것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박국 2:4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완전히 일치되는데 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은 살리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로마서 처음 17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주제를 소개하고 몇몇 중요한 사실들을 간략히 밝혔다. 이제 그는 “왜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세 번째 주요 질문을 다루게 된다. 그 답은 간략히 말해서, 복음 없이는 인간은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네 가지 부차적인 질문을 야기한다.

- (1)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교도는 잃어버린 상태인가(1:18-32)?
- (2)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도덕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상태인가(2:1-16)?
- (3) 하나님의 옛 지상 백성인 유대인은 잃어버린 상태인가(2:17-3:8)?
- (4)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상태인가(3:9-20)?

3. 복음에 대한 우주적인 필요(1:18-3:20)

1:18 여기서 우리는 “왜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대하게 된다. 그 답은, 그들은 복음이 없이는 잃어버린 상태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 한 가지 답은 문맥 속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러움과(1:24) 부끄러운 욕심과(1:26) 상실한 마음에(1:28) 내어 버려두신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죄에 대한 그분의 극도의 불쾌감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데, 이를테면 대홍수(창 7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창 19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심판(민 16:32) 등의 사건이 그러하다.

1:19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교도는 잃어버린 상태인가?” 바울은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소유하되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물에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채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1:20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특성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 혹은 하나님 되심이 그것이다.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특성을, 그분의 본래적인 신성이 아닌 그분의 영광스런 속성들을 가리킨다.

여기서의 요지는 분명한데 그것은, 피조물은 창조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작품은 제작자를 요구한다.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봄으

로써 누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교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으나 그들은 그러한 계시를 순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구주를 거절한 까닭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에 충실하지 않은 까닭에 정죄를 당하는 것이다.

1:21 그들은 그분의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드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신들에 관한 헛된 철학과 사상들에 몰입되었고 그 결과 분명히 보고 생각할 능력을 상실했다. “거절된 빛은 부인된 빛이다.” 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볼 능력을 잃게 된다.

1:22 인간은 스스로 만든 지식으로 인해 자만해지면 해질수록 무지와 우둔함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하는 자들을 항상 특징지운다. 그들은 극도로 자만하고 동시에 한없이 무지하게 되었다.

1:23 소위 “원시인”(early man)은 하등형태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높은 도덕적 체계를 지니었다. 그는 참되고 무한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길을 같이 하는 어리석음과 부패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모든 과정이 진화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다. 그는 어떤 숭배할 대상을 가져야만 한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했을 때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모양을 한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만들었다. “사람, 금수, 버리지”로 하락하는 과정을 주목하라.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숭배하는 것과 같이 된 것을 기억하라. 그의 신에 대한 개념이 하락할수록 그의 도덕적인 개념 또한 하락한다. 만일 그의 신이 버리지라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살 수 있다고 느낀다. 또한 숭배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숭배 대상보다 열등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여기서 뱀의 형상보다 못한 위치를 취하고 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이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전 10:20).

1:24 하나님이 인간을 내어버려두셨다는 말씀이 세 차례 나온다. 그분은 인간을 더러움과(1:24) 부끄러운 욕심과(1:26) 상실한 마음(1:28)에 내어버려두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전 인격에 대해 임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악한 정욕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적인 더러움(간음, 음행, 음란, 매춘 등등)에 내어버려두셨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할 성적인 유흥장이 되어버렸다.

1:25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포기는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라는 거짓 것을 위해서 그분에 관한 진리를 포기한데서 연유했다. 우상은 거짓 것, 즉 하나님을 그릇 되이 제시한 것이다. 우상 숭배자는

피조물의 형상을 숭배하며, 그로써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를 모욕하고 욕되게 한다.

1:26 이 동일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동성과의 성애(性愛)에 빠지도록 내어버려두셨다. 여인들은 동성연애자가 되어 부자연스런 성관계를 가지면서 아무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다.

1:27 남자들도 그들의 자연적인 역할을 완전히 뒤바꾸어 동성연애자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혼인관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향해 음욕이 불 일듯 했으며 동성애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그 대가를 그들의 몸과 영혼에 치르게 했다. 질병과 죄의식과 인격적인 파탄이 독화살같이 그들을 찔렀다. 이것은 그러한 죄는 범한 다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 준다.

동성애는 오늘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의 질병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의 적법한 생활방식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림 받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약에서 그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했으며(레 18:29; 20:13) 여기 신약에서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롬 1:32). 성경은 동성애를 매우 심각한 죄로 말씀하며, 이는 동성연애자들이 미친 듯이 소동을 피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사실에서 입증된다(창 19:14-25).

복음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에게 그러한 듯이 동성연애자들에게도 용서와 죄사함을 베풀어준다. 이 가증스런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용서와

회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동성애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실은 동성애를 향한 자연적인 성향을 지닌 듯 보인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닌데, 이는 타락한 인성은 어떤 형태의 죄든 다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죄는 그것을 향한 성향이 아니라 그것에 굴복하고 그것을 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유혹에 저항하고 지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고전 10:13).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동성연애자들이 그러한 생활방식에 어쩔 수 없이 매일 필요를 없음을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었다(고전 6:9-11).

1:28 사람들이 창조주로든 지탱자로든 혹은 구원자로든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혹은 “마음”; 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 속에 두기를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일련의 다른 형태의 죄악을 범하게 하셨다. 본질은 진화론이 왜 자연인에게 그렇게 호소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해 준다. 그 까닭은 그들의 지성이 아닌 의지에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진화론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두고 만물의 기원을 설명해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 자신이 그분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9 여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특징짓는 추가적인 죄의

어두운 목록이 있다. 인간은 이따금씩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들로 “가득한” 자라는 것을 주목하라. 그는 다음과 같은, 인간 존재에 합당치 않은 죄들로 훈련된다.

불의, 성적인 부도덕²⁾(음행, 간음 및 기타 형태의 불법적인 성행위), 추악(적극적인 악), 탐욕(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구), 악의(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 즉 악의에 찬 증오심), 시기, 살인(분노나 그 밖에 다른 죄를 범함으로 다른 사람을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죽이는 일), 분쟁(다툼, 언쟁), 사기(속임수, 반역, 음모), 악독(악의, 적대감, 분개심), 수군수군하는 자(은밀한 비방꾼, 험담꾼).

1:30 비방하는 자(공공연히 비난을 일삼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혹은 하나님께 가증스런 자), 능욕하는 자(악의로 모욕하는 자), 교만한 자(오만불손한 자), 자랑하는 자(자기를 과시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비행과 새로운 형태의 악을 생각해 내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부모의 권위에 거역하는 자).

1:31 우매한 자(도덕적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자), 배약하는 자(그들의 목적에 기여할 때는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 무정한 자³⁾(자연적인 유대관계와 그에 따르는 의무들을 아주 무시하고 행동하는 자), 무자비한 자(잔인하고 원한에 찬 자).

2) (1:29) 일부 맛소라 필사자들이 실수로 “성적인 부도덕”이란 표현을 삭제할 수 있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헬라어에서 “포르네이아”란 단어는 “포네리아”(악)라는 다음 단어와 너무 흡사하다.

3) (1:31) 31절은 다섯 개의 부정어구를 포함하는데 NU는 “무자비한”(아스트로구스)과 흡사한 “매정한”(아스폰투스)을 생략한다.

1:32 성(性)을 남용하고(1:24) 타락시키고(1:26-27), 그밖에 열거된 죄들(1:29-31)을 범하는 자들은 그것들이 악할 뿐 아니라 사형에 해당한다는 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죄를 아무리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러한 형태의 불경건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연합하여 그 죄들을 증가시키며, 그 죄에 가담한 자들과 더불어 동료의식을 느낀다.

☐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의 운명은?

그렇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멸망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어떠한가? 이방인들이 받는 정죄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허락하신 빛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데 있다. 그 대신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 되었으며 그 결과 타락하고 죄악된 삶에 자신을 방임하고 말았다.

그러나 어느 이방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을 따라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우상을 불태우고 참 하나님을 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의 운명은?

어떤 이들은, 만일 이방인이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빛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는다. 고넬료가 그 실례로 인용된다. 그는 하나님을 구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만한 것으로 상달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다(행 11:14).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 창조 안에 계시된 하나뿐인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음을 듣기 전에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역을 근거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그 사람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아는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빛에 근거해서 그 사역의 가치가 그에게 유효하다고 간주하신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것이 갈보리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방법과, 또 지금도 지능이 부족한 자들과 책임연령 전에 죽는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첫 번째 견해는 고넬료의 경우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뒤에 온 시대(오늘날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또한 능동적인 선교활동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상태이며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는 그 정확한 신분에 대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린다.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도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첫 번째 구절은, 그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을 정죄하는(그러나 그들도 같은 죄를 짓는다) 면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도덕주의자들임을 보여준다. 9,10,12,14,15절 등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정에 상정된 문제인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도덕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상태인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그렇다, 그들도 잃어버린 상태이다”라는 것이다. ♠

2:1 두 번째 부류는 미개인들을 저 아래 내려다보며 자신들이 더 개화되고 배우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그 엄청난 죄악상으로 인해 미개인들을 정죄하지만 실상 방법만 좀 추상적일 뿐이지 그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더 쉽게 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있는 비열하고 혐오스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는 한결 이해할 만한 것들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있는 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가 다른 이가 그의 아내를 가로채는 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다면, 또한 그는 자신이 다른 이의 아내를 가로채는 것도 잘못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가 정죄한 다른 이들의 죄를 범할 경우 그는 핑계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문명인의 죄는 본질상 미개인의 죄와 동일하다. 도덕주의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할는지 모르나, 그는 다음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

- (1) 그는 그 모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 (2)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셈이 된다(약 2:10).
- (3) 실제 행동으로는 범한 적이 없을지 모르는 죄를 생각으로 범했는데 이는 말씀에 금지된 바다. 예수님은 가령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간음과 동등하다고 가르치셨다(마 5:28).

2:2 독선적인 도덕주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교훈이다. 사도는 2-16절에서 그 교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상황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은

진리에, 오로지 진리에 기초한다.

2:3 둘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 자신도 범하는 죄에 대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자들로서는 피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들의 능력이 그들을 유죄(有罪)로부터 면제해 주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정죄를 증가시킨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다.

2:4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은 때때로 지체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지체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증거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분께서 인자하게도 그들의 죄는 아니지만 죄인들과 위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용납하심은 그분께서 인간의 악함과 거역에 대한 형벌을 보류하고 계신 것을 묘사해 준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인간의 계속적인 격동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자제력을 말해 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섭리와 보호와 보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벧후 3:9).

“회개”란 죄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태도의 변화를 낳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이다.”⁴⁾ 그것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수긍하는 것 이상이다. 존 뉴튼이 “내 양심이 내 죄를 느끼고 시인

4) (2:4) A. P. Gibbs, *Preach and Teach the Word*, p. 12/4.

했다”고 표현한 대로 그것은 양심도 포함한다.

2:5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배우는 네번째 사실은 그것은 죄가 쌓여감에 따라 점차 누적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완고하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 재물을 모으듯 그들 자신에 대한 심판을 쌓고 있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백보좌 심판이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에(계 20:11-15) 그 결과가 어떠하겠는가!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 편견이나 불공평함이 없이 온전히 의로운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2:6 이어지는 다섯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행한 대로 이뤄질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적인 뛰어난 자랑할 수 있다. 그의 민족적 혹은 국가적 배경을 크게 의지할 수도 있다. 선조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행함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만일 6-11절 자체만으로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다고 결론 내리기 쉬울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런 뜻일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일관된 증거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기 때문이다. 웨이퍼(Chafer)는 신약성경의 약 150구절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증거한다고 지적한다.⁵⁾ 어떤 구절도, 올바르게 이해되는 한 그러한 압도적

인 증거와 모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선행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여쭙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답하셨다(요 6:28-29). 즉,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믿음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아무 가치 있는 것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가장된 의(義)는 더러운 옷처럼 보일 것이다(사 64:6). 그들의 정죄는 예수님을 주(主)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될 것이다(요 3:18). 게다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받을 형벌의 정도를 결정해줄 것이다(눅 12:47-48).

만일 신자들이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분명 그들은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 선한 행위도 제시할 수 없다. 구원받기 전의 그들의 모든 행위는 죄악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에 보낼 아무 죄목도 그들에게서 발견하실 수 없으시다. 일단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선한 일을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 항상 선한 일은 아닐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다. 그들의 선한 일은 구원의 유효한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행위가 평가받을 것이며 그들은 모든 충성된 봉사에 대해 상급을 받을 것이다.

5) (2:6) Lewis S. Chafer, *Systematic Theology*, III:376.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신자들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2:7 심판이 행위대로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그러한 자들이 “참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것이다. 아무도 자연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표현에 진실로 적합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사실이 그가 이미 거듭났음을 보여준다.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하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존귀와(요 5:44) 부활체를 특징짓는 썩지 아니함과(고전 15:53-5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벧전 1:4)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생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받는 현재의 소유이다(요 5:24). 또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화롭게 된 몸을 받을 때 우리의 것이 될 미래의 소유이다(본문과 롬 6:22).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지만 때로는 충성된 삶에 대한 상급과 연관이 있다(막 10:30). 모든 신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중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그것을 누릴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생명의 질로써 구주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보다 풍성한 생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다(골 1:27).

2:8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들은 노와 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복음의 초청에 순응한 적이 없다. 그 대신 그들은 불의를 그들의 주인으로 순종하기로 택했다. 그들의 삶은 다툼과 분쟁과 불순종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2:9 이제 사도는 두 종류의 행위자 및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재 언급하되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언급한다.

그 판결인즉,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환란과 곤고가 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악행들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야 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받은 특권 내지 빛에 따라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지상 백성으로서 특권에 있어 첫째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책임에 있어 첫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러한 측면은 12-16절에서 더욱 발전될 것이다.

2:10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 대한 판결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련되는 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지 않으면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는 표현은 편애(偏愛)를

가리킬 리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무사하다고 다음 구절이 말해주는 때문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1장 16절의 경우처럼 복음 전파된 역사적인 순서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었으며 처음 믿은 신자들은 유대인이었다.

2:11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또 한 가지 진리는 그것이 사람을 의도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용모가 좋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호의가 베풀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평하시다. 인종이나 지역 혹은 용모에 대한 고려가 일절 그분께 영향을 주지 못한다.

2:12 위에서 언급했듯이 12-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받은 빛의 정도에 따라 임한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해준다. 여기에는 율법 없는 자들(이방인)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유대인)의 두 부류가 고려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이 세 부류로 인류가 구분되어 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할 것이다. 본문은 “율법 없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 없이 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계시를 따라 심판받을 것이며, 그러한 계시에 따라 살지 못함으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율법 아래서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멸망할 것이다. 율법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2:13 율법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율법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아무도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안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질은 사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가르친다(행 13:39; 롬 3:20; 갈 2:16,21; 3:11).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오늘 이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지난간 일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13절 말씀은,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며,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부터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냉엄한 사실인즉 아무도 그런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4 14-15절은 괄호부분으로서 내용상, 율법 없이 범죄하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한 12절 앞부분으로 돌아간다. 이제 바울은 비록 이방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본성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거짓말과 도적질과 간음과 살인을 범하는 것이 잘못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유일한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이는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닌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본능을 통해서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2:15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이다.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행하기로 의도된 행위가 이방인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가령,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들은 또한 어떤 행위들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안다. 일종의 탐지기 역할을 하는 그들의 양심이 그러한 본능적인 지식을 확증해 준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결정해 주고,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금하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한다.

2:16 이 구절은 내용상 12절과 연결된다. 본문은 율법 없는 자들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심판받을 때를 말해 준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마지막 사실, 즉 그것이 사람들의 공적인 죄만이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 다룬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현재에 은밀한 죄는 백보좌 심판 때에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 엄위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 되실 텐데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그분께 맡기셨기 때문이다(요 5:22). “내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자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의미한다.

2:17 사도는 이제 세 번째 부류에게 돌이켜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도 잃어버린 상태인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물론 그 답은 “그렇다, 그들도 잃어버린 상태이다”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결코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지옥 불꽃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유대인보다 더 가까울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자만심을 무너뜨려야 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자랑한 것들을 평가한다. 그는 유대인이란 이름을 지녔으며 그로써 하나님의 택한 지상 백성의 일원이었다. 그는 율법을 의지했는데 그것은 의지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양심에 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 민족과의 독특한 언약관계를 맺은 바 있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자랑했다.

2:18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은 그 뜻의 일반적인 개관이 성경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는데 이는 율법이 그에게 도덕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2:19 그는 도덕적,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인도자요, 무지의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다.

2:20 그는 어리석은 혹은 배우지 못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어린아이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율법이 그에게 지식과 진리의 개관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2:21 그러나 유대인이 자랑한 그런 것들은 결코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도덕적인 변화 없이 그저 민족과 종교와 지식을 자랑한데 불과했다. 그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나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지 않았다.

2:22 그가 간음을 금했을 때 그것은 “내가 행하는 바가 아닌 말하는 바를 행하라”는 식의 가르침이었다. 그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아마 실제로 이교도의 신전을 약탈함으로써 신사(神社) 물건을 도적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2:23 그는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 거룩한 교훈을 범함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2:24 이러한 고상한 말과 저급한 행동의 결합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그분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으레 그렇듯이, 주님을 판단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했고(사 52:5)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하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분이 전부라면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

2:25 율법에 더하여 유대인은 할례 의식을 자랑했다. 그것은 유대인 남성의 양피에 행해진 가벼운 외과수술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과 맺은 그분의 언약의 증표로 제정되었다(창 17:9-14).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표를 가진 것을 몹시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로 부르며 멸시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와 모세 율법을 연관지어, 할례는 순종의 삶과 결합될 때 비로소 하나의 증표로 유효하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은 단순한 의식주의자가 아니시다. 그분은 내적인 거룩이 따르지 않는 한 외적인 의식에 만족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율법을 범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은 차라리 할례 받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사도가 율법을 행한 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2:26 따라서 만일 어떤 이방인이 비록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에 암시된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의 무할례가 유대인 범법자의 할례보다 한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경우에 그 이방인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2:27 이방인의 우월한 행동은, 의문과 할례를 가졌으나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 받은 삶 즉 분리와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 유대인을 정죄한다.

2:28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유대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가 그 속에 흐르거나 그 몸에 할례의 표를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지니고도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주님은 민족이나 종교에 대한 외적인 고려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적인 정직과 순결을 원하신다.

2:29 진정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을 나타내는 자이다. 본질은 모든 신자는 유대인이라거나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바울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단순한 출생이나 할례의식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내적인 실제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문제이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신체의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중생치 못한 옛 본성을 단절하는 영적인 실제이다.

그와 같이 외적인 표와 내적인 은혜를 조화시키는 자들은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유대인”이란 단어는 “칭찬”(혹은 “찬송”)을 뜻하는 “유다”에서 나왔다.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께로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3:1 바울은 본장의 처음 8구절에서 유대인이 죄인이란 문제를 계속 다룬다. 여기서 한 유대인 반박자가 나타나 사도를 반대신문하기 시작한다. 그 신문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반박자: 만일 당신이 2장 17-29절에서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며 또 할례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3:2 바울: 유대인은 많은 특권을 지녀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은 그 기록과 보존을 위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엄청난 특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전체적으로 그들은 극심한 믿음의 결여를 드러냈다.

3:3 반박자: 그렇다면, 만일 모든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철회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인가? 어쨌든 그분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과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다. 어떤 이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폐하게 할 수 있겠는가?

3:4 바울: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나 인간이 옳은가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기초 위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라. 이것이 다윗이 시편 51:4에서 말한 바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완전한 진실성이 옹호되며, 주님은 범죄한 인간에게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진실함이 입증된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확증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3:5 반박자: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가? 만일 우리의 의(義)가 하나님의 의(義)를 더욱 빛나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 있겠는가?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이런 말을 인용함에 있어 인간적인 논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3:6 바울: 그러한 논리는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적합하시겠는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바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3:7 반박자: 그러나 만일 나의 죄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온다면, 만일 나의 거짓말이 그분의 참되심을 입증한다면, 만일 그분이 인간의 분노로 그분을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나를 죄인으로 일관되게 흠잡으실 수 있겠는가?

3:8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겠는가?

바울: 실제로 어떤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논리를 사용한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비방이다.

반박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논리적이지 않겠는가?

바울: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정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마지막 주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당신이 그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나가서 죄 가운데 살 수 있을 테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 위에 풍성하게 넘치므로 당신이 죄를 범할수록 그분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지 않겠는가?” 사도는 6장에서 이러한 반박에 답변한다.)

3:9 반박자: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 죄인보다 낫다는 얘

긴가? 혹은 어떤 번역에 의하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악한가?”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 답은, 유대인은 더 낫지도 더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질문으로 연결된다. 바울은 앞서 미개인은 잃어버린 상태이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도덕주의 자들도 잃어버린 상태이며, 유대인도 잃어버린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상태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 답은, “그렇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듯이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이다. 이것은 유대인도 이런 점에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

3:10 만일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그 증거는 구약에서 발견된다. 먼저 우리는 죄가 인간 부모에게서 난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며(3:10-12), 이어서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본다(3:13-18).

3:11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각을 가진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시 14:2). 만일 그대로 버려둔다면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혹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12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다. 모든 인류가 부패하게 되었다. 선한 삶을 사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시 14:3).

3:13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들의 언어는 항상 속임을 베풀었다(시 5:9). 그들의 대화는 독한 입술에서 흘러나온다(시 140:3).

3: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증오로 가득하다(시 10:7).

3:15 그들의 발은 살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신속하다(사 59:7).

3:16 그들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간다(사 59:7).

3:17 그들은 평강을 얻는 법을 알지 못했다(사 59:8).

3:18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시 36:1).

이상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α선 촬영)이다. 그것은 우주적 인 불의(3:10), 무지와 하나님을 향한 독립(3:11), 완고함과 무익함과 일체의 선함의 결여(3:12) 등을 드러낸다. 인간의 목구멍은 썩음으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기만적이고 그의 입술은 유독하다(3:13). 그의 입은 저주로 가득하고(3:14) 그의 발은 살인에 빠르고(3:15) 그의 길에는 환란과 파멸이 있고(3:16) 그는 평강을 얻는 법을 모르며(3:17)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3:18).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게 되는데 이는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바울이 보다 완전한 죄의 목록을 제시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간음, 동성애, 매춘, 강간, 혼음, 음화, 음어 등의 성적인 죄와, 고문, 학대, 집단 살육, 개스실, 강제수용소 등의 전쟁과 관련된 죄, 의무 불충실, 이혼, 구타, 정신적인 학대, 어린이 학대 등의 가정적인 죄, 살인, 절도, 강도, 횡령, 부정부패 등의 사회적인 죄, 신성모독, 희롱, 음탕한 말, 저주, 모욕, 거짓말, 험담, 비방, 인격모독, 불평 등의 언어의 죄, 그리고 그밖에 만취, 마약복용, 교만, 시기, 탐심, 배은망덕, 증오, 보복심 등의 인격적인 죄를 언급할 수 있었다. 그 목록은 사기, 배신, 착취, 인종차별주의, 약속파기 등등 끝이 없어 보인다.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3:1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을 인류의 한 표본으로 사용하는 중이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시고 올바르게도 그러한 상황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셨다. 그것은 마치 수질 검사관이 어떤 우물에서 소량의 물을 시험관에 담아 시험을 해본 후 오염된 것을 발견하면 그 우물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공표하는 것과도 같다.

요컨대 바울은, 율법이 말할 때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하여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3:20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지식(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똑바른 줄을 알지 못하면 줄이 얼마나 구부러졌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율법은 똑바른 줄과 같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시험해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더러운 것을 보기 위해 거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울은 더러운 얼굴을 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온도계는 몸에 열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데, 온도계를 치워버린다고 해서 열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죄의식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때는 좋은 것이지만 죄에서 건져내는 데는 무가치한 것이다. 루터의 말대로 율법의 기능은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것이다.

4. 복음의 기초와 조건(3:21-31)

3:21 이제 우리는 “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불경건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이 답변을 하는, 로마서의 핵심부에 이른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義)는 율법과 무관하게 계시되었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의롭게 구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 계시되었다는 것과 그것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거나 간과하거나 눈감아 주실 수 없으시다. 그분은 죄를 징벌하셔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하나님의 의(義)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나 그분의 사랑은 죄인의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義)를 타협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를 계시해 준다.

이 의로운 계획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되었다. 그것은 구속을 위해 피 흘림을 요구한 제사제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미리 증거되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예언에 의해서도 미리 증거되었다(사 51:5,6,8; 56:1; 단 9:24).

3:22 21절은 그 의로운 구원이 율법 준수를 근거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이제 사도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지를 말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건져주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완전히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위(位)와 사역에 대한 계시에 근거한다.

믿음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며 그 증거를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에서 발견한다. 믿음은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믿는 것보다 무엇이 더 합리적인 일이겠는가?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사거나 얻는 공로가 아니다. 인간은 주님을 믿은 것으로 인해 자랑할 수 없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믿음은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원이 “모든 자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위에” 미친다고 말해 준다.⁶⁾ 그것은 모두에게 유효하고 모두에게

6) (3:22) NU는 “모든”을 생략한다.

제시되고 모두에게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모든 자에게” 미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믿는 자 위에”만 미친다. 즉,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행위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삶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용서는 모두를 위한 것이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개인적인 삶에서 유효하게 된다.

구원이 모두에게 유용하다고 말할 때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시키는데 이는 이제는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아무런 특권이 없으며 이방인은 아무런 불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다.

3:23 복음의 유용성은 필요만큼이나 우주적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⁷⁾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까닭에 그 필요는 우주적이다. 모든 육체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 아담은 범죄할 때 그의 모든 후손의 대표자로 행동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에 의해서만 죄인일 뿐 아니라 실제 행위에 의해서도 죄인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죄에 대한 소고(小鼓)

죄란 거룩과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그것은 표적을 잃는 것이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인디언이 자신이 쓴 화살이 표적에 미치지 못하자 “오, 나는 죄를 범했네”라고 아쉬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의 표현 속에는⁸⁾ 죄를 범한 것과 표적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같은 단어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7) (3:23) 문자적으로 “죄를 범했다”(완료형이 아니라 부정과거형).

8)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모두 마찬가지다.

죄는 불법,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피조물의 뜻의 반역이다(요일 3:4). 죄는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약 4:17).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롬 14:23). 이것은 타당한 의심을 가진 일을 행하는 것은 잘못이란 의미이다. 만일 그 일에 관해 분명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채 밀고 나가 그것을 행한다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모든 불의가 죄이다(요일 5:17).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도 죄이다(잠 24:9).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격려와 부추김을 받을 때 죄는 행동으로 발산되며 그 행동은 사망을 가져온다. 죄는 처음에 보기에는 종종 매력적이나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끔찍하다.

때때로 바울은 죄들(sins)과 죄(sin)를 구분 짓는다. 죄들은 우리가 범하는 잘못된 일들을 가리킨다. 죄는 우리의 악한 본성,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리킨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범하는 어떤 잘못보다 훨씬 악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악한 행실뿐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분은 육신의 죄를 정죄 혹은 심판하신다(롬 8:3).

죄와 범법(transgression)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범법은 알려진 법을 범하는 것이다. 도적질은 근본적으로 죄악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이다. 그러나 도적질은 그것을 금하는 법이 있을 때는 범법이기도 하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것이다(롬 4:15).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는 그 처방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

3:24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또 조건 없는 은혜의 행위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의롭다 하는” 행위란 무엇을 뜻하는가?

“의롭다 하다”(justify)는 단어는 의롭다고 간주 내지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것이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례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수 있다(눅 7:29).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사에 있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인간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자신의 의(義)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눅 10:29).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의롭다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는 있다. 하나님은 신자 자신을 무죄하거나 의롭게 만드시지 않는다. 그 대신 의(義)를 그의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다. A. T. 피어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때 그들이 의롭지 않은 데도 실제로 의롭다고 부르신다. 죄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죄를 전가하지 않고, 그리고 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의를 전가하는 것이다.”⁹⁾

칭의(稱義)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내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9) (3:24) Arthur T. Pierson, *Shall We Continue in Sin?* p. 23.

것과 같이”이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그분은 그를 유죄에서 방면해주실 뿐 아니라 그를 그분 자신의 의(義)로 옷 입히고 그로써 그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온전히 적합하게 해 주신다. “칭의는 면죄에서 인준으로, 용서에서 승진으로 뛰어넘는다.”¹⁰⁾ 면죄란 어떤 사람이 고소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할 뿐이나 칭의는 적극적인 의(義)가 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의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인들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야고보가 칭의(稱義)가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친 것은(약 2:24) 우리가 선행이나, 혹은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행을 낳는 그런 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칭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간주(看做)라는 것이다. 그것은 신자가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니다. 신자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에 그것이 일어난 줄 아는 것이다. C. I. 스코필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것은 신자의 신경조직이나 감정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10) (3:24) Paul Van Gorder, in *Our Daily Bread*.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덕목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관계되는 한 그것은 자격 면에서나 노력 면에서나 지불능력 면에서나 완전히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

이후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멈추어 신약성경에는 칭의의 여섯 가지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피로,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나 충돌이 없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5:1)-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5:9)-이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 구주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가리킨다.

우리는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4:24-25)-이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8:33)-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약 2:24)-이것은 선행이 칭의를 가져다준다는 뜻이 아니라 선행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뜻이다.

3장 24절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대한다. “구속”이란 몸값을 지불하여 다시 사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예수께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되돌리셨다. 그분의 보혈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불된 몸값이었다. 만일 “그 몸값이 누구에게 지불되었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요점을 놓친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게든 사단에게든 그 몸값이 치러진 대상에 대한 암시가 없다. 그 몸값은 어느 누구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의로운 기초를 제공해준 추상적인 해결책이었다.

3:25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은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고, 그리고 열납될 만한 제사를 근거로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는 수단이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세 번 화목제물로 언급되어 있다.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자비를 발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한일서 2:2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분의 사역은 온 세상을 위해 충분하지만 오직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데서 나타났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와 화목하소서”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심화된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

“화목제물”이란 단어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나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화목)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구속하다(화목케 하다)”는 표현은 “형벌을 치름으로써 없애주다”는 뜻이다.

“화목제물”에 상응하는 구약성경의 단어는 “시은죄”이다. 시은죄는 언약궤의 뚜껑이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시은죄에 뿌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속해 지거나 덮여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그분은 그 이상의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덮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이제 바울은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피에 두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화목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분의 피가 치러진 대가이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은 지나간 죄의 사면을 위한 하나님의 의(義)를 선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 범해진 죄들을 가리킨다.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계시에 기초하여 그분을 믿은 자들을 구원하셨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창 15:6).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의롭게 행하실 수 있겠는가? 아직 죄

없는 대속물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아직 온전한 제물의 피가 흘러지지 않았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다. 대가가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 답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것을 아셨으며, 이에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을 근거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비록 구약의 성도들이 갈보리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가치를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약의 신자들은 외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들은 장차 지불되어야 할 값을 근거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들은 갈보리를 내다보았으며, 우리는 갈보리를 뒤돌아본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한다고 한 바울의 말에 담긴 의미이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릇 생각하는 대로 개인이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새로운 출생 전에 죄를 처리했으며 그 사역 이후로 인간은 자기 책임 하에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럴 리가 없다. 바울은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간과하신 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들을 너그러이 용서해주거나 못 본 체 하셨다는 뜻처럼 여겨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실 것을 아셨고 이에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따라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기간이었다. 적어도 4천년 동안 그분은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해 오셨다. 그러다 때가 차매 그분의 아들을, 죄를 담당할 자로 보내셨다.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롭고 거룩한 진노의 맹렬함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두 쏟아 부으셨다.

3:26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한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완전히 치를 것을 요구하신 까닭에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대속물이 죽고 다시 살아난 까닭에 그들의 죄를 봐주거나 그 자신의 의로움을 타협함 없이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알버트 미들레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시로 노래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구주의 피 안에 증거되어 있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시니
그의 죄가 그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가를 보네.
죄가 구주 위에 지워지고
그분의 피 안에서 죄 값이 치러졌네.
엄한 공의가 더 이상 요구치 못하고

대신 자비가 베풀어지니
믿는 죄인이 자유롭게 되어 고백하는 말,
‘구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피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네.’”

3:27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안에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는가? 자랑이란 금지되고 배제된다. 어떤 원리에 의해 자랑이 배제되는가? 행위의 원리에 의해서인가? 아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로서 말미암는다면 온갖 자화자찬이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의 원리 위에 있으므로 자랑할 아무 근거가 없다.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죄만 지었고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셨네.” 참된 믿음은 자기 도움, 자기 개선, 혹은 자기 구원의 가능성을 일체 부인하고 구주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나는 아무 가진 것 없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네.
별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나아와
입혀주시기를 바라고
아무 도움 자 없는 몸으로 주님께 나아와
은혜 베푸시기만 바라네.
이 더러운 몸 주께 나아왔사오니
구주여 나를 정케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죽겠나이다.”
(어거스터스 M 토폴레디).

3:28 자량이 배제되는 이유로써 바울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재차 진술한다.

3:29 복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분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완전하고 값없는 구원이 제시된다.

3:30 두 하나님(유대인을 위한 하나님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한 가지 구원 방법이 있다. 그분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다. 칭의의 방편은 두 경우 모두 “믿음”이다.

3:31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구원이 율법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율법이 무가치하며 따라서 무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가? 복음은 율법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제쳐두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준다. 어떻게 세워주는가?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그 형벌이 치러져야 한다. 그 형벌은 죽음이다. 만일 범법자 자신이 그 형벌을 치른다면 그는 영원히 잃어질 것이다. 복음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범해진 율법의 형벌을 치르셨는가를 말해 준다. 그분은 그 형벌을 무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이제 무릇 율법을 범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

해서 그 형벌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의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복음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충족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율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5. 복음과 구약성경의 조화(4장)

바울이 상정하는 다섯 번째 주요 질문은 “복음은 구약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히 유대 백성에게 중요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제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복음은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칭의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4:1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인물(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자신의 요지를 입증한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과 더불어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다. 한 사람은 율법이 주어지기 수세기 전에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후에 살았었다. 하나는 할례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 후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

먼저 모든 유대인이 그들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 육신에 따른 그의 경험은 어떠했는가?¹⁾ 그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발견했는가?

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는 자랑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위치를 얻는데 대해 스스로 자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불

11) (4:1) 혹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의 경험.

가능하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엡 2:9).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자랑할 만한 근거를 가졌다는 암시가 일절 없다.

그러나 혹자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무수한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길을 떠남으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그 후 30여년 후의 일이었다(창 22장). 그러한 순종의 행동은 그의 믿음의 실제성을 입증하였다. 그것은 그가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 일이었다.

4:3 아브라함의 칭의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한다(창 15:6).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가 무수한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족장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義)로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단순했다. 행위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행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4:4 이 모든 것은 구원의 계획과 관련하여 행위와 믿음의 대조에 관해 언급하는 성경의 복스런 말씀 중 하나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생계를 위해

일한 다음 주말에 그 임금을 받는다면 그는 그 값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번 것이다. 그는 고용주에게 굽실거리면서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자신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양하지 않는다. 당치도 않은 얘기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받아 넣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간다.

그러나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이 아니다.

4:5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노력으로 얻을 가능성을 일절 부인한다. 그는 일체의 개인적인 공로나 선함을 부인한다. 그는 자신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대신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다. 그는 주님께 믿음과 신뢰를 둔다. 그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 들인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것은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니다. 공로는 그의 믿음에 있지 않고 그의 믿음의 대상에 있다.

그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황금률에 따라 살았으며, 다른 이들처럼 악하지 않다는 명분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는 경건치 않고 범죄한 죄인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義)로 여겨진다. 그가 일 대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義)를 전가하신다.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義)로 옷 입히고 그로써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게 하신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그 근거 위에서 그를 받아들이신다.

요약하자면, 칭의는 선인(善人)이 아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빛이 아닌 은혜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4:6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논지(論旨)를 증명하기 위해 다윗으로 넘어간다. 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죄인이 행복한 자라고 말했다. 다윗은 이것을 그다지 많은 말로 말하지 않았으나 사도는 시편 32장 1-2절에서 그것을 발췌하여 다음 두 구절에 인용해 넣고 있다.

4:7-8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먼저 그는 다윗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주목했다. 죄사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이다. 둘째로, 그는,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인정치 않으시려면 그 사람은 그분 앞에서 반드시 의로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았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는데도 이 구절들에서 완전하고 조건 없는 용서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다.

4:8 그러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할

례 받은 자들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일부 유대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도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돌아간다. 그는 “의(義)는 믿는 유대인에게만 전가되는가 아니면 믿는 이방인에게도 전가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아브라함이 실례로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칭의가 유대인에게만 전가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4:10 여기서 바울은 우리들 대부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한 역사적인 사실에 포착한다. 그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창 17:24) 전에 의롭다 함을 얻은(창 15:6) 것을 보여준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다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겠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있을 때에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이것은 이방인들이 할례와 전연 무관하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다.

4:11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육신의 외적인 표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외적인 증표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전가하신 의(義)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된다.

할례는 표가 될 뿐더러 인(印,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다. 표(標)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의 존재를 가리킨다. 인(印)은 표시

된 것의 진정성을 옹호하고 확증하고 증명하고 보증해 준다. 할례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신바 되었음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의(義)를 인친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의로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가 믿음을 통해서 의(義)를 얻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마 후자가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할례는 그의 믿음에 속한, 혹은 그가 믿음을 근거로 얻은 의(義)를 인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다른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 즉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그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그 신자들이 그의 믿음을 본받는 까닭에 그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들은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그들의 모본으로 좃음으로써 그의 자손이다. 또한 이 구절은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님, 곧 그 메시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로 구성된다.

4:12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즉 할례도 받고 그가 무할례시에 받은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 그의 뒤를 좃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도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아

브라함의 후손인줄 아노라”고 하셨다(요 8:37). 그러나 그런 다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이라고 말씀하셨다(요 8:39). 요컨대 여기서 바울은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할례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믿음은 있으나 할례를 받지 못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 믿음도 있고 할례도 받은 그런 때도 있었다. 바울은 이 사실로부터,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 모두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소유하고 또 그의 자손으로서 그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한 눈으로 통찰한다.

4:13 “냉철하게 논증이 전개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가능한 반박자들을 모든 가능한 논리와 성경의 갈래 길로 쫓아낸다.”¹²⁾ 사도는 이제 축복이 율법을 통해서 왔으며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주장을 다뤄야 했다(요 7:49 참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분은 그 약속을 어떤 법조문에 좌우되는 조건적인 것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율법 자체는 430년 후에 비로소 주어졌다-갈 3:17). 그것은 믿음(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의[義]를 받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었다.

“세상의 후사”란 표현은 그가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 될 것이며(4:11-12), 그가 유대 민족만이 아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4:17-18) 의미한다. 이 약속은 아브라

12) (4:13) 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이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함의 후손(씨)인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의 흠을 쥐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실 때 그 완전한 의미에서 성취될 것이다.

4:14 만일 하나님의 축복을, 특히 칭의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지게 될 것이다. 믿음이 제켜지는 까닭은 그것이 율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믿는 문제이나 율법은 행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조건에 기초하는 까닭에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4:15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것은 그 계명을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징죄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은 사형선고를 받는다. 율법 아래 있으면 불가피하게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범함”(transgression)은 알려진 율법을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는 그것을 금하는 법이 없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한이 가해질 때 그것은 “범함”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함으로 축복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상속받은 것이란 “범함”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범함”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달리 표현하면 죄가 그 모든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분은 결코 범죄한 범법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그 율법을 주

신 것이 아니다.

4:16 율법은 하나님의 칭의가 아닌 진노를 이루게 하므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셨다. 그분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값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생명의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되었다. 여기서 “굳게 하다”와 “모든”이란 두 낱말을 살펴보자. 먼저 하나님은 약속이 굳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 만일 칭의가 인간의 율법 행위에 의존한다면 인간은 자신이 선하고 옳은 일을 충분히 했는지 알 수 없는 까닭에 결코 굳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을 노력해서 얻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완전한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선물로 제시될 경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율법이 주어진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도—굳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즉 모든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상이다.

4:17 아브라함이 모든 참된 신자들의 조상됨을 입증하기 위해 바울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지상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한정될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사도는, 그것을 발견하는 곳마다 믿음을 높이

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슬기롭게 인용한다.

“그의 믿은바 하나님”이란 문구는 4장 16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잇고 있다. 그 관 계인즉,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이해하려면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죽은 자(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리시는데,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넘긴 상태였다(4:19).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많은 민족을 포함한 무수한 후손-4:18) 같이 부르신다.

4:18 앞 구절들에서 바울은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되기 위해, 그리고 모든 후손에게 굳게 되기 위해 약속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모래처럼 무수한 후손을 약속하셨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모든 기회가 거의 상실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희망과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5:5에서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소망하고 믿었다.

4:19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75세였다(창 12:2-4). 그 때만 해도 그는 육체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는 그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데서 알 수 있다

(창 16:1-11).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약 1백세가 되고 약속이 새롭게 주어진 때를 말하고 있다(창 17:15-21). 이즈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없이 새로운 생명을 낳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 몸의 죽은 것¹³⁾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염려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절망적이었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

4:20 약속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외견상의 상황이 그를 멈칫거리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책이었다. 그 족장에 관한 단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하고 생동감 넘쳤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그분을 모든 기회나 가능성의 법칙을 뛰어넘어 능히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높여드렸다.

4:21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는지 알지 못했으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행하실 줄을 온전히 확신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놀라운 믿음이었으나 다른 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주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믿는 것이 전혀 모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3) (4:19) 어떤 사본들은 “...아니다”를 생략하지만 결과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4:22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뻐하셨다. 그분은 항상 그러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의(義)를 아브라함의 것으로 여기셨다. 전에는 죄와 죄책의 기록이 있던 곳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위치만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정죄에서 해방되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4:23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실을 기록한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면을 받고 현재적인 완전한 위치에 있는 사실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인 것이다.

4:24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간주된다. 유일한 차이인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즉 그의 약한 몸과 사라의 생명력을 잃은 태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 C. H. 매킨토시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브라함은 한 약속을 믿을 것을 요청받았으나 우리는 한 이뤄진 사실을 믿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그는 이뤄질 것을 내다보도록 요청받았으나 우리는 이뤄진 것, 즉 구주께서 부활하여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신 사실에 의해 증명된 완성된 구속을 돌아다본다.”¹⁴⁾

4:25 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서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칭의에 대해 모두 “위하여”(헬, “*δια*”)란 전치사가 사용되었으나 문맥은 각 경우에 다른 의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것을 없이하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족해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전자의 경우에 “우리의 범죄함”은 처리될 필요가 있는 문제였다. 후자의 경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확보되는 결과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아무런 칭의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사역이 완성되고 값이 지불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주의 속죄사역을 무한히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6. 복음의 실질적인 혜택(5:1-11)

사도는 “칭의가 신자의 삶에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취함으로써 이 칭의의 문제를 한발자국 앞으로 가져간다. 그 질문은 다시 말해서 “칭의는 진정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신자가 소유한 여러 가지 중요한 축복을 열거하면서 “그렇다”고 힘차게 답하고 있다. 그 축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에게 흘러들어간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시이며,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그분을 통해 전달된다.

14) (4:24) C. H. Mackintosh, *The Mackintosh Treasury: Miscellaneous Writings* by C. H. Mackintosh, p. 66.

5:1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중요한 혜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전쟁은 끝났다. 적대관계는 종식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적의감의 모든 원인이 제거되었다. 우리는 은혜의 기적에 의해서 원수에서 친구로 변화를 입었다.

5:2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말할 수 없는 위치로 들어감을 누린다. 우리는 사랑받는 분 안에서 열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만큼이나 하나님께 가깝고 또 가깝다. 아버지께서 금홍을 우리에게 내밀고 우리를 외인이 아닌 아들들로 맞아주신다. 이 은혜, 혹은 은혜 안에서 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 즉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위치만큼 온전하고 영원한 위치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마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양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광휘를 응시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광중에 나타나게 될(요 17:22; 골 3:4) 때를 기쁨으로 고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소망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이로움을 세세토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5:3 칭의에서 흘러나오는 네 번째 축복은 우리가 환란 중에도(그 현재적인 불안뿐 아니라 그 영원한 결과에 있어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다(히 12:11). 기쁨이 환란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 중 하나이다. 기쁨의 반대는 고난이 아니라 죄이다. 환란의 부

산물 중 하나는 그것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환란이 없으면 결코 인내를 발전시킬 수 없다.

5:4 바울은 계속해서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견디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인내의 상을 내리신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인정하셨다는 느낌은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의 인격을 발전시키신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빌 1:6).

5:5 소망은 낙심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다가 후에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좌절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우리가 거짓된 확신을 의지했다고 깨닫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순간 주어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로 넘치게 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령을 받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이것은 누군가 초월자가 인류를 돌보고 있다는 막연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한 인격체로서 사랑하신다는 깊은 확신이

다.

5:6 6-20절에서 바울은 점층법을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의 논지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분의 불경건한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임했다면 지금 우리가 그분께 속한 상황에서는 더욱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칭의의 다섯 번째 혜택(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으로 인도한다. 이 주제를 전개하면서 사도는 다섯 가지의 “더욱 많은 것”을 제시한다.

“더욱” 진노에서 구원받는다(5:9).

“더욱”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보호를 받는다(5:10).

“더욱” 은혜의 선물이 많아진다(5:15).

“더욱” 신자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한다(5:17).

“더욱” 은혜가 넘친다(5:20).

6-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다)를 강조한다. 9-10절에서 그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입고 그분의 죽음으로 화목케 되었다)와 그 결과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실)의 확실성을 강조한다.

먼저 그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어떤 이들의 생각대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리를 추천할 만한

아무런 미덕도 가치도 없었다. 우리는 완전히 무가치했으나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5:7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독특하고 또 인간의 경험 속의 어떤 것과는 비교되지 않았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치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살인자나 간음자나 폭력배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의인”, 즉 마음이 특별히 따뜻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를 꺼려한다. 극단적인 예지만 “선인”, 즉 친절하고 따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간혹 있다.

5:8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초자연적이에요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다. 만일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을 요구할 만한 아무 선한 것도 없었다.

5:9 이제 새로운 일련의 상황이 존재한다.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한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에서 흘려진 구주의 피의 엄청난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을진대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만일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면 우리
가 종국에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실 리 있겠는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노하심 밖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일 수도 있고 “진노하심과의 일체의 관계로부터 구원
을 얻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전치사(행 “*απο*”)가 후
자(시간에 있어서나 영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의 일체의 관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5:10 우리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적의
를 품었으며 그런 상태에 상당히 만족해했다. 우리는 홀로 된 채 그
분과 화목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원수였
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 우리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순수한 은혜를 나타냄으로 개입하셨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인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대감의 원인(즉, 우리의 죄)을 제거
해 주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과 화목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값진 희생으로 우리의 화목을 사셨다면 그
분이 과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겠는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아
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면(이것은 우리의 전적인 연약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그 무
한한 능력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종국에 보존함을 입지 않겠는가?
만일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분의 살으

심(생명)은 우리를 지킬 능력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

5:11 이제 칭의의 여섯 번째 혜택에 이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는 그분의 선물 안에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 자신 안에서 즐거워한다.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데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즐거워하며 그분을 잊을 때에만 슬퍼한다. 무엇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했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다른 모든 축복과 마찬가지로 이 기쁨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일곱 번째 혜택은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이란 문구에서 발견된다.¹⁵⁾ “화목”은 구주의 희생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뤄진 것을 가리킨다. 죄의 유입(流入)은 혼란과 탈선과,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감을 가져왔다. 탈선을 초래한 죄를 없이함으로써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로 회복시키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화목을 필요로 한 쪽은 인간이었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적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7. 아담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승리(5:12-21)

5:12 5장의 나머지 부분은 서신의 첫 번째 부분과 다음 세 장 사

15) (5:11) 1611년 당시에는 “구속”으로 옮긴 KJV의 번역이 옳았는데 그 당시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었다.

이에 교량 역할을 해 준다. 이 부분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정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담의 사역이 가져온 불행과 손실을 훨씬 뛰어넘는 축복을 가져왔음을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 부분과 연결된다. 또한 이 부분은 칭의에서 성화로, 또 죄의 행위들에서 인간 본성의 죄로 넘어감으로써 6-8장과 연결된다.

아담은 여기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 혹은 대표자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 창조에 속한 모든 자들의 대표자로 제시된다. 대표자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행동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서명을 할 경우 그는 그 나라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경우에 일어난 일도 그러하다. 그의 죄의 결과로 세상에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다. 죽음이 아담의 모든 후손의 공통된 몫이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담 안에서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모두 개별적인 죄의 행동들을 범했으나 여기서의 요점은 그것이 아니다. 바울의 논지는, 아담의 죄는 대표 행위였으며 그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혹자는 세상에서 최초의 죄를 범한 자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다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아담이 처음 지음받은 자였기에 대표권이 그에게 부여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후손을 대신해서 행동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한 것은, 비록 아담의 죄가 영적인 죽음도 가져왔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킨 것이다(13-14절이 그 점을 뒷받침 해준다).

본문에 이르노라면 으레 몇몇 의문들이 일어난다. 아담의 후손이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은 공정한 처사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출생한 것으로 인해 징죄하시는가, 아니면 그들이 실제로 범한 죄로 인해 징죄하시는가? 만일 사람들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러저러한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여 아주 다양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몇 가지 확실한 사실들뿐이다.

첫째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본성과 상태 모두에 있어 죄인임을 가르친다.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으며, 또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죄를 범한다.

둘째로, 우리는 죄의 값이 사망(육체적인 죽음 및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원치 않는 한 죄의 형벌을 치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중요한 요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죽게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 죄와 그 값으로부터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로 제시되었다.

인간은 세 가지 근거에서 징죄를 받는다. 즉, 그는 죄악된 성품을 지니며, 아담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으며, 그리고 그는 실제 행동에 의해 죄인이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해결책을 거절하는 것이다(요 3:18,19,36).

그러나 혹자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 질문은 1장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답변

이 되었다. 그 외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안심할 수 있다(창 18:25). 그분은 결코 불평 부당하게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모든 결정은 공평과 의에 기초한다. 비록 몇몇 상황들이 우리의 흐린 시야에는 문제로 보이겠으나 그분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고 법정의 문이 닫힐 때 아무도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적절한 근거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5:13 바울은 이제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는 먼저 죄가 아담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구두(口頭) 명령을 받았으며,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록된 계시로 십계명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는 비록 죄는 있었으나 아무런 범함도 없었는데 이는 범함은 알려진 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금하는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범함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5:14 그러나 사망은 법이 없던 기간에도 계속 존재했다. 에녹만을 제외하고 사망이 모든 인류 위에 지배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범한 까닭에 죽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죽었는가? 그 답은 함축적인데, 그들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만일 이것이 불공정하게 들린다면 이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

하라. 주님을 믿은 모든 이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 똑같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까닭은 그들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 그 대표자 역할에 있어서 아담은 오실 자(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바울은 그 두 대표자 문제를 유사점보다는 대조점의 측면에서 전개시킬 것이다. 요컨대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들을 자랑한다.”

5:15 첫째로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대조된다. 첫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물론 아담의 후손을 가리킨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할 수 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친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죄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나타남이다. 그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거역한 피조물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분 편에서 놀라운 은혜였다.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제시된다.

본절에 나오는 두 “많은 사람”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사망에 복종하게 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신 새로운 창조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자들, 즉 신자들만 포함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두에게 베풀어졌지만 그분의 은혜는 구주를 믿는 자들에 의해

서만 소유된다.

5:16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선물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대조가 나타난다. 아담의 한 범죄는 필연적인 심판을 초래했으며 그 판결은 “정죄”였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가 아닌 많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했으며, “사면”이란 판결을 가져왔다. 바울은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선물, 한 죄에 의해 행해진 엄청난 재난과 많은 죄로부터 행해진 크나큰 구원, 그리고 끝으로 정죄의 판결과 칭의의 판결 등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잔인한 폭군으로 왕 노릇했다. 그러나 의(義)의 은혜로운 선물, 곧 넘치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는 폭군인 사망의 통치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며 이제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린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만끽하는가? 우리는 천국의 왕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오물더미에 파묻혀 비굴하게 기어다니는가?

5:18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으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를 가져왔다. “의의 행동”은 구주의 생애나 혹은 그분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분의 갈보리의 대리적인 죽음이었다. 이것이 생명의 칭의(즉 생명을 가져오는 칭의)를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것이다.

본절에 나오는 두 “많은 사람”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한 앞 구절의 표현으로 보아 분명하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만 생명의 의를 받는다.

5:19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했다.

모든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만인구원론자들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이다. 본문은 두 대표자를 다루고 있으며, 아담의 죄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혜택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

5:20 바울의 이러한 논증은 모든 것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믿던 유대인 반박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제 이 반박자는 죄와 구원이 율법이 아닌 두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는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라고 묻고픈 마음이 들 것이다. 이에 사도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대답한다. 율법은 죄를 생성시키지는 않았지만, 죄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드러나게 했다. 그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는 대신 죄를 그 모든 끔찍한 실상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보다 큰 것으로 판명된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갈보리 은혜가 더욱 넘쳤다!

5:21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부과한 죄의 통치가 마감되었으므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통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다스린다는 점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거룩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고 율법의 형벌이 치러졌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속주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아마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는가?”라는 흔히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답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보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고 인간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 안에 있을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 더 행복하다. 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상의 에덴동산에서 지속적인 생명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사,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는 전망이 없었다. 그는 천국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과 영원히 그분처럼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그러한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온다.

8. 거룩한 삶에 이르는 복음의 방법(6장)

5장 끝에서 바울이 한 말(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 위에 넘쳤다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다. “복음의 가르침(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은 죄악된 삶을 허용 내지 조장하는가?”

그 대답은 강한 부정으로서 6-8장에 걸쳐 전개되어 있다. 여기 6장에서는 그 대답이 “알다”(3,6절), “간주하다”(11절), “드리다”(13절) 등 세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한다.

만일 우리가 신자의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면 본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논지를 이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자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위치를 말하고, 신자의 상태는 그의 현재 모습 혹은 그가 매일의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말한다.

은혜는 우리를 신분에 들어가게 한 다음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신분은 절대 완전하다. 우리의 상태는 점차 우리의 신분과 일치되어야 한다. 천국에서 구주를 뵈을 때까지는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 점점 그분의 형상에 일치되어야 한다.

사도는 먼저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있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는 진리를 밝힌 다음 그 위대한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한다.

6:1 유대인 반박자는 결정타라고 생각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온다. 만일 은혜의 복음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크게 나타낼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가르친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현대역은 이 주장을 이렇게 옹기고 있다. “당신은 사람이 율법과 무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

러나 만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믿는 것뿐이라면 당신은 세상에 나가 죄 가운데 살아도 될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은혜는 거룩한 삶을 위한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반드시 율법의 제약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장에는 “우리가 죄에 거하겠는가?”라는 서두의 질문에 대해 네 가지 답변이 나온다는 점을 밝혀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1)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럴 수 없다”-설명(1-11절).
- (2) 죄의 지배가 은혜에 의해 분쇄되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호소(12-14절).
- (3) 그것은 죄를 또 다시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명령(15-19절).
- (4) 그것은 재앙을 가져올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경고(20-23절).¹⁶⁾

6:2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분적인 진리이다.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즉,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우리의 위치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즉, 우리로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죽은 것이다. 그분은 죄의 문제 전체에 대해 죽으사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에 대해 죽은 상태이다.

이것은 신자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신자가 그분의 죽음과 그 죽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있어 그리스도와 동일시

16) (6:1) J. Oswald Sanders, *Spiritual Problems*, p. 112.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3 바울의 논증에 나오는 첫 번째 주요 단어는 “알다”(know)이다. 여기서 그는 신자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 문제를 소개한다. 그러나 즉시 “어떤 세례를 가리키는가?”하는 질문이 야기된다. 그래서 여기에 서론적인 설명을 잠시 덧붙인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비록 그 둘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성령 세례와 같지 않다. 성령 세례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위치시킨다(고전 12:13). 그것은 죽음에 합한 세례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합한 세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세례를 말할 때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것과 또 그것이 물세례를 통해 묘사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증이 전개됨에 따라,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장사되고” “함께 심겨졌는지”를 상기시키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물세례로 강조점을 옮기는 듯하다.

신약성경은 세례 받지 않은 신자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고려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은 곧바로 세례에 복종할 것을 권한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믿음과 세례를 동시적인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 세례는 비록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원

의 공적인 표증이어야 한다.

6:4 물세례는 그리스도에 합한 세례를 외적으로 잘 나타내 준다. 그것은 신자가 죽음의 어두운 물속에 잠긴 것(주 예수님의 위[位] 안에서)과,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일어난 것을 묘사해 준다.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는 그가 자신의 옛 자아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담의 범죄한 아들로서의 나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해졌다.” 그리고 물 위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갈 2:20).

“원래의 세례가 침수에 의한 것임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 구절은 이해될 수 없다”고 코니베어(Conybeare)와 호오슨(Howson)은 말한다.

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한다고 진술한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완전함(의로움, 사랑, 공의 등)이 그분이 주님을 살릴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위(位)의 뛰어남을 생각할 때, 구주를 무덤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구주를 살리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었기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한다.

6:5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듯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분과 연합될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문구는 신자가 세례를 통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실제 연합된 것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났으나 세례는 그 때 일어난 일의 “본”(likeness)이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물 위로 나오는데 이는 그분의 부활의 본(本)이다. 사실 “본받아”란 문구는 원문상에는 본질 후반부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의미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충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물 속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듯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물에서 나오므로) 그분과 연합된다. “...되리라”란 표현은 꼭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지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장래 일어날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일치 혹은 자연스런 관계의 확실성을 가리킨 것이다. 만일 하나가 발생하면 다른 하나가 확실히 뒤따르는 것이다.”¹⁷⁾

6:6 우리는 침례를 통해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다. “우리의 옛 사람”은 아담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든 과거(옛 습관과 욕구와 거듭나지 못한 옛 자아)를 가리킨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흠 없는 옷을 입듯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골 3: 9,10).

옛 사람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사용불능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죄의 몸”은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지 않

17) (6:5) Charles Hodge, *The Epistle to the Romans*, p. 196.

는다. 그 대신 그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전제군주로서 의인화된 내 주하는 죄를 가리킨다. 이 죄의 몸이 멸해졌다. 즉, 폐기되거나, 지배하는 세력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마지막 문구가 그것이 그런 뜻임을 보여준다. 우리를 다스리던 죄의 폭정이 무너진 것이다.

6:7 가령 여기에 경찰관을 죽인 죄로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당하기로 선고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죽는 즉시 그 죄에서 해방된다(문자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형벌이 치러졌고 사건처리가 종결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형벌이 치러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이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력한 포로가 아니다.

6: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진리의 한 면이다. 다른 면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또한 살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나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우리에게 대한 죄의 지배는 분쇄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공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6:9 우리의 확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다스리지 못한다. 죽음이 밤낮 3일간 그분을 다스렸으나 그 다스림은 영원히 끝났다. 그리

스도는 다시는 결코 죽으실 수 없으시다!

6:10 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죄의 문제 전체에 대해 단번에 영원히 죽으셨다. 그분은 죄의 권리와 그 삶과 그 요구와 그 형벌에 대해 죽으셨다. 그분은 그 사역을 마치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 다시는 되풀이될 필요가 없게 하셨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새로운 관계, 즉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죄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살펴본 1-10절을 정리해 보자. 그 전체 주제는 “성화”(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역사를 마감시킨다.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개혁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선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집행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상태이다. 우리에게 대한 죄의 폭정이 소멸되었는데, 이는 죽은 사람에게에는 죄가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몸이다.

6:11 바울은 앞서 신분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인 것을 묘사했다. 이제 그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우

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루쓰 팩슨(Ruth Paxson)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6:6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그것을 우리 각인의 개인적인 구원에 있어 사실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옛 사람’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져오는 분명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 옛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곳인 십자가에서 볼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다. 믿음이 은혜가 위치시킨 곳에 그를 머물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깊이 연루시키는데, 이는 그 옛 ‘나’에 대해, 살 가치가 전혀 없고, 또 우리에게 대해 더 이상 아무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고와 판결을 내리신 데 대해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거룩의 삶을 향한 첫 발자국은 이같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¹⁸⁾

우리는 유혹에 대해 죽은 자처럼 반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게 된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구원받기 전에 연인이던 한 여자의 유혹을 받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자 그녀가 따라오며 소리쳤다. “어거스틴, 나예요! 나예요!” 이에 어거스틴은 걸음을 재촉하면서 뒤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알아요.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이 아는 내가 아녜요!”¹⁹⁾ 그의 말은 그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18) (6:11) Ruth Paxson, *The Wealth, Walk, and Warfare of the Christian*, p. 108.

19) (6:11) C. E. Macartney, *Macartney's Illustrations*, pp. 378, 379.

는 뜻이었다. 죽은 사람은 부도덕, 거짓말, 사기, 험담 등등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과 경배, 기도, 섬김 및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한다.

6:12 우리는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전제군주인 죄가 무기력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무력한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실제적인 권면은 신분적으로 사실인 것에 기초한다. 우리는 그 악한 욕망에 복종함으로써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 노릇하게 해서 안 된다. 갈보리에서 죄의 왕 노릇은 죽음으로 마감되었다. 우리의 협력자가 필요하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나 그분은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6:13 그것은 본장에 나오는 세 번째 주요 단어(드리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를 죄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 혹은 도구로 사용되게 해서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지체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려 의(義)를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상태이다. 그리고 6장 4절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한다.

6:14 이제 죄가 신자인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6:6).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

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지배권을 행사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율법은 그에게 할 일은 알려주지만 할 능력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은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 잠재된 욕망을 부추겨 금해진 것을 하게 한다. “금단의 열매가 달콤하다”는 오랜 격언이 있듯이 말이다.

죄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주관하지 못한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으로 내주하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주에 대한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은혜야말로 진실로 거룩을 낳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데니의 말대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억제가 아니라 감동이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이다.”²⁰⁾

6:15 은혜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은혜가 죄를 짓도록 자유를 허락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정면 대응한 다음 그것을 단호히 부정한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상태이지 무법한 상태가 아니다. 은혜는 주님을 섬길 자유를 의미하지 그분을 거스려 죄를 범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6장 1절에서의 질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였으나 여기서의 질문은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리요?”였다. 그 답은 두 경우 모두 “그럴 수 없다!”는 단호한 부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다.

20) (6:14) James Denney,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II:635.

6:16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복종시키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삶의 단순한 원리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며, 또한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게 된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거룩한 삶이다. 죄의 종은 죄의식과 두려움과 번뇌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의 종은 새 성품이 사모하는 것을 자유롭게 행하게 된다. 그런즉 자유롭게 될 수 있을진대 어찌 종이 되려 하겠는가?

6: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때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그 영향력 아래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충격에 정직히 반응하여”(JBP).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본 서신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포함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에 전심으로 순종했다.

6:18 바른 교훈은 바른 의무로 이어져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진리에 순응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문구는 그들이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그들이 더 이상 죄의 행동을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니다. 문맥은 그것이 삶의 지배세력으로서의 죄에게서 해방된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6:19 6장 18절에서 사도는 의의 종에 대해 언급을 했으나 그는 의롭게 사는 자들은 사실 속박을 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실제적인 의로움은 우리가 사람의 예를 좇아 말할 때를 제외하고

는 종노릇이 아니다.”²¹⁾ 죄를 짓는 자들은 죄의 종이나 아들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들은 진실로 자유롭다(요 8:34,36).

바울은 자신이 종과 주인의 비유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될 때는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진리는 종종 쉽게 이해되도록 예증될 필요가 있다.

구원받기 전에 신자들은 그들의 몸을 온갖 종류의 부정(不淨)과 불법에 드러 불법에 이르렀다. 이제 그들은 그 동일한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림으로써 그들의 삶을 진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6:20 그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들이 아는 유일한 자유는 의(義)로부터의 자유였다. 그것은 모든 악에 사로잡히고 모든 선에게서 해방된 최악의 상태였다!

6:21 바울은 그들에게(또한 우리에게), 구원받지 않은 삶의 열매, 즉 신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활동들의 열매를 점검해 보라고 도전한다. 마르쿠스 레인스포드(Marcus Rainsford)는 그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정력이 소모되고 시간이 허비되고 친구들을 망치고 영향력이 그릇 사용되고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한,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끄러움’ 그 자체이다.”²²⁾

그러한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모든 죄는 죽음을 향해 간다.

21) (6:19) Charles Gahan, *Gleanings in Romans*, in loco.

22) (6:21) Marcus Rainsford, *Lectures on Romans VI*, p. 172.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그 목표이자 열매인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A. T. 피어슨은 말한다.²³⁾

6:22 구원은 한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제 그는 그의 주인인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자발적인 종이 된다. 그 결과는 현재의 거룩한 삶과 여정이 끝날 때의 영생이다. 물론 신자는 현재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질은 영화롭게 된 부활체를 포함하여 그 완전한 형태의 영생을 가리킨다.

6:23 바울은 다음과 같은 생생한 대조를 제시함으로 본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

두 주인-죄와 하나님

두 방법-샀과 값없는 선물(은사)

두 결과-사망과 영생

영생은 한 인격체 안에 있으며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이심을 주목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이다!

9.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율법의 위치(7장)

사도는 이제 필연적으로 제기될 한 질문을 예상한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마 바울은 이 질문에 답변하면서 특히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나, 그러나 그 원리는 어리석게도 의롭다 함을 얻은 뒤에 삶의 지침으로써 율법 아래

23) (6:21) Pierson, *Shall We Continue in Sin?* p. 45.

자신을 두기를 원하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6장에서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는 죄의 본성의 폭정을 종식시켰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마찬가지로 그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율법의 지배를 종식시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1 본절은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한 6장 14절과 연결된다. 바울은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를 잘 알고, 따라서 율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음을 마땅히 알고 있을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7:2 그것을 예증하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죽음이 결혼 계약을 파기시키는지 보여준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결혼 계약에 의해 그 남편에게 매인 바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7:3 만일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녀는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결혼할 수 있다.

7:4 이 비유를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세부 사항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그 남편도 아내도 율법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비유의 요점은 죽음이 결혼 관계를 파기하듯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그에 대한 율법의 지배권을 파기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라. 율법은 여전히 죄의식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그가 본문에서 “우리”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이전 상태의 유대인들을 가리킨 표현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죽음으로 그분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한 결혼이 죽음으로 파기되었고 새로운 결혼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7:5 이 열매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맺은 열매의 종류를 생각나게 한다. “육신에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육체(몸)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위치를 말해 준다. 그 때는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의 근거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납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의존했다. “육신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와 반대된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았다. 율법이 그러한 정욕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정체를 알리고 또 그것을 금함으로써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 표현되었으며,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는 사망을 초래하는 독한 열매를 맺었다. 다른 데서 사도는 그 열매를 육체의 일로 언급하고 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갈 5:19-21).

7:6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많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결과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그 두려운 형벌을 치름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그 불가피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다시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

“하나님은 두 번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시리.

나의 피 흘리신 증보자의 손에서 받으셨으니

내게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리.”

(아우구스투스 M. 토플레디)

이제 우리는 의문의 묶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 해방되었다. 우리의 섬김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된다.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섬김이다. 그것은 더 이상 형식과 의식의 세세한 규정에 노예처럼 얽매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우리 자신을 즐거이 바치는 문제이다.

7:7 이 모든 것으로 보아 바울은 율법에 대해 “비판적”인 듯 보인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는 말한 바 있으며, 이것은 율법이 악하다는 인상을 줄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7장 7-13절에서 그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삶에서 율법이 행한 중요한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며 다만 율법이 인간의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의 마음의 처참한 타락상을 그에게 일깨워준 것이 율법이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그는 제법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그의 내면세계를 도전하자 그는 할 말을 잃고 정죄를 당했다.

그에게 죄를 드러내준 한 가지 구체적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제 10계명이었다. 탐내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바울은 비록 심각하고 혐오스런 죄는 범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이제 자신의 사고생활이 타락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과 똑같이 죄악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오염된 사고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외적인 삶은 비교적 흠이 없었을지 모르나 그의 내적인 삶은 가증스런 것들로 가득했다.

7:8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이 각양 탐심을 금할 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더욱 더 그것을 하고자 자극된다. 예를 들어, 율법은 사실상 “너는 마음에 성적인 장면들을 연상해서는 안돼. 너는 쾌락에 탐닉하는 삶에 빠져서는 안돼”라고 말한다. 율법은 부정하고 은밀하고 수치스런 생각을 금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율법은 물리칠 능력은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성적인 상상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어떤 행동이 금지되면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더욱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잠 9:17).

상대적으로 말해서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죄악된 본성은 잠자는 개와 같다. 법이 와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개는 깨어 일어나 미친 듯이 금지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7:9 율법에 의해 깨우침을 받기 전에는 바울은 살아있었다. 즉, 그의 죄악된 본성은 어느 정도 수면 상태에 있었고 그는 다행히도 그 마음에 있는 죄악의 구렁텅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계명이 오자(즉, 계명이 압도하는 객체로 오자) 그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불붙게 되었다. 그는 순종하면 할수록 더욱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이나 노력에 의해 구원을 이룰 가능성에 관한 한 죽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선(善)에 대한 생각에 대해 죽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꿈에 대해 죽었다.

7:10 그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실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계명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마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회고한 말씀인 듯하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적으로”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했다. 사자 율 밖에 “보호망 뒤로 물러나시오”라고 경고문이 쓰여 있을 경우 그 경고문에 순종하면 그 명령은 생명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자와 장난치기 위해 가까이 하는 어린이에게는 그것은 사망을 가져온다.

7:11 다시금 바울은 율법은 잘못이 없다고 강조한다.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도록 그를 부추긴 것은 내주하는 죄였다. 죄가, 금단의 열매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또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으로 그를 옳아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복을 위한 쾌락을 제지하신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와 같이 죄는 구원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의 최선의 희망에 대해 죽음을 가져왔다는 의미에서 그를 죽였다.

7:12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또 모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음을 우리는 뇌리에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으며, 따라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서 완전하다. 율법의 문제점은 그 적용 대상에 있었다. 그것은 이미 죄인인 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줄 율법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은 죄의 형벌과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구주를 필요로 했다.

7:13 “선한 것”은 앞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율법을 가리킨다. 바울은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의문은 “율법이 바울(과 우리 모든 사람)을 죽음에 처하게 한 범인인가?”라는 뜻이다. 그 대답은 물론 “그럴 수 없느니라”이다. 죄가 범인이다. 율법은 죄를 생성시키지 않고 다만 죄를 그 모든 죄악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3:20).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어떤 행동을 금할 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잠자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이 이제 어떻게 타오르는 욕망이 되었는가! 이같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되는 것이다.

이곳과 7장 10절에서 바울이 한 말 사이에는 모순이 있어 보일 수 있다. 거기서 그는 율법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율법이 그에게 사망이 되었음을 부인한다. 해결책은 이러하다. 율법 그 자체는 한편으로는 옛 성품을 개선시킬 수도 없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죄를 짓게도 할 수 없다. 율법은 온도계가 온도를 드러내듯이 죄를 드러낸다. 그러나 율법은 온도조절장치가 온도를 조절하듯이 죄를 다스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인간의 타락한 인성은 본능적으로 금해진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은 죄인의 삶에서 잠자고 있던 욕망을 깨우기 위해 율법을 이용한다. 인간은 노력할수록 더욱 삶이 악해져 결국 모든 희망을 잃기에 이른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개선에 대한 모든 희망이 그의 안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전에 본적이 없는 그의 옛 성품의 심히 죄악됨을 보게 된다.

7:14 이 시점까지 사도는 그의 삶의 지난 경험, 즉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경험했을 때의 그 고통스런 상황을 묘사해 왔다.

이제 그는 거듭난 이후의 그의 경험(두 성품간의 싸움과, 그 자신의 힘으로는 내주하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발견할 수 없음)을 묘사하기 위해 현재 시제로 전환한다. 바울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 즉 본질상 거룩하고 또 인간의 영적인 유익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삶에 내주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

에 자신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는 깨닫는다. 그는 죄 아래 팔린 상태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죄의 노예로 팔린 것처럼 느낀다.

7:15 이제 사도는,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신자의 속에서 진행되는 싸움을 묘사한다.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며 시내산에 오르는 사람의 두 성품간의 싸움이다. 헤리 포스터는 이렇게 설명한다.

“여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을 이루고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12절)을 이뤄보려고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패배한 싸움이요 또한 놀랄 일이 아닌데 이는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²⁴⁾

9-25절에 1인칭 대명사(나, 나를, 나의, 나 자신)가 40번 이상 나온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 로마서 7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는 비타민을 과다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승리가 발견될 수 없는 자아를 세세히 살피며 거기서 승리를 찾고 있다.

슬프게도, 대부분 현대 기독교 심리 상담은 내담자의 관심의 초점을 그 자신에게 모으게 함으로, 그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더 심화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육신을 개선시키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두 성품간의 싸움을 묘사하면서 바울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24) (7:15) Harry Foster, *article in Toward the Mark*, p. 110.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킬과 하이드 박사처럼 분열된 인격체이다. 그는 원치 않는 일에 빠지고 증오하는 일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7:16 그같이 그의 건전한 판단이 정죄하는 행동을 할 때 그는 자신을 거스려 율법 편에 서고 있는 것인데 이는 율법도 그러한 행동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는 율법은 선하다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7:17 이것은 범인은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내주하는 죄의 탓으로 돌림으로 우리의 범죄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본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죄악된 행동의 원인을 추적하려는 것이지 그것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7:18 바울이 여기서 알게 된 것(“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거룩에 아무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여전히 모든 신자 속에 있는 악하고 타락한 성품을 의미한다. 그것이 사람이 범하는 모든 악한 행동의 근원이다.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옛 성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준다. 그것은 거기서 아무 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 실망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 자기 성찰 속에는 승리가 없다. 경건한 성도인 스콧트, 로버트 머레이 맥케이의 말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열 번 바라보아야 한다.

육신의 가망 없음을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사도는, 그에게 옳은 것을 행하고픈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에 옮길 능력은 자기 속에 없노라고 탄식한다. 물론 문제는 그가 닳을 배 안으로 던지고 있는데 있다.

7:19 이렇게 하여 두 성품간의 싸움이 격화된다. 그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온통 모순과 이율배반으로 가득했다.

7:20 본질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만일 옛 성품이, 새 성품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는 내주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가 죄를 범하는 것은 새 사람의 소원대로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7:21 그는 그의 모든 선한 의도를 실패로 끝나게 만드는 한 원리 혹은 법이 그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옳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7:22 그의 새로운 성품에 관한 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는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7:23 그러나 그는 그 새로운 성품과 싸워서 그로 하여금 내주하는 죄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한 반대되는 원리가 그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조오지 커팅은 이렇게 묘사한다.

“비록 그는 속사람을 좇아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율법은 그에게 아무 능력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 것, 즉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복종케 만드는 것을 성취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육신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자신을 심히 대적한다는 것을 발견한다.”²⁵⁾

7:24 이제 바울은 그의 잘 알려진 감동적인 신음을 토해낸다. 그는 마치 부패케 하는 몸이 그의 등에 묶여있는 양 느낀다. 그 몸은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중에 있는 옛 성품이다. 곤고한 지경에서 그는 자신이 그러한 천하고 혐오스런 속박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음을 시인한다. 그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7:25 본절에서 볼 수 있는 감사의 탄성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가 더 이상 앞절의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대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

25) (7:23) George Cutting, *“The Old Nature and the New Birth”*(booklet), p. 33.

나님께 감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본절의 나머지는 구원이 깨달아지기 전에 두 성품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을 요약해 보인다. 신자는 새로워진 마음, 혹은 새로운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혹은 옛 성품)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다음 장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설명된 것을 발견한다.

10.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이 되는 성령(8장)

거룩한 삶이란 주제가 여기서도 지속된다. 6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가르침(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악된 삶을 허용 내지 조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한 바 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응했다. 이제 주어진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가?”이다.

우리는 즉시 7장을 가득 메운 인칭 대명사가 거의 사라지고 성령이 지배적인 인격체가 되었음을 주목하게 된다.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게 있다. A. J. 고오든은 성령의 일곱 가지 도움을 이렇게 열거한다. 봉사의 자유(2절), 봉사의 능력(11절), 죄에 대한 승리(13절), 봉사의 인도(14절), 아들됨의 증거(16절), 봉사의 조력(26절), 기도의 조력(26절).

8:1 절망과 패배의 골짜기를 벗어나 사도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승리의

외침으로 높은 곳에 오른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죄에 관한 한 아무런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우두머리인 아담 안에 있는 동안은 정죄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러기에 그분처럼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댈 수 있다.

“먼저 나의 복스런 구주께 이르러
하나님 존전에서 그분을 끌어내리고
예수께서 죄가 있음을 증명한 다음에
내가 더럽다고 말하라.”

(W. N. 토킨스)

그러나 그 고백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자기 정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통과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2절은 왜 정죄함이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²⁶⁾

8: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법 혹은 원리가 있다. 성령의 특징적인 원리는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다. 내주하는 죄의 특징적인 원리는 사람

26) (8:1)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란 문구는 4절에서 잘못 필사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사본에 나타나며,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일 수도 있다.

을 사망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과도 같다. 공을 공중에 던지면 땅으로 다시 떨어지는데 이는 공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새도 공기보다 무겁다. 그러나 그 새를 공중에 띄워 보면 그것은 멀리 날아간다. 새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중력의 법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여 신자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

8:3 율법은 결코 사람들로 그 거룩한 요구를 이루게 해 줄 수 없으나 은혜는 율법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라!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까닭에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없었다.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 타락한 인간 본성에 있었다. 율법은 이미 죄인 되었으며 순종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개입하셨다. 주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 자체로 오시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라. 그분은 죄를 범치 않으셨고(벧전 2:22), 죄를 알지 못하셨고(고후 5:21), 그 속에 죄가 없으셨다(요일 3:5).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은 죄 있는 인간과 흡사하셨다.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범하는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벧전 3:18)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가 행한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 우리의 죄성은 결코 사함 받는다고 선포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죄를 받는다. 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들이다.

8:4 이제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은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뤄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성령께 양도하면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도록(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이다.) 능력을 베풀어주신다.

이상 1-4절에서 사도는 5장 12절에서부터 7장 25절에 이르는 그의 논증의 맥락을 총집결시켰다. 5장 12-21절에서 그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우두머리 됨을 다루었다. 이제 8장 1절에서 그는 우리가 아담과 동일시됨으로 물려받은 정죄함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6장, 7장에서 그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두려운 죄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승리에 찬 선언을 한다. 7장에서는 율법 문제 전체가 제기되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8:5 육신을 좇아 사는 자들(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육신의 충동에 순종한다. 그들은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산다. 그들은 잠시 후면 흠으로 돌아갈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산다.

그러나 성령을 좇아 사는 자들(즉, 진실한 신자들)은 혈과 육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 및 주님의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

8:6 육신의 생각(즉, 타락한 본성의 정신적인 성향)은 사망이다. 그것은 현재적인 즐거움과 궁극적인 운명 모두에 관한 사망이다. 그것은 독을 과다 섭취한 것처럼 그 속에 사망의 모든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실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의 보증이 되신다.

8:7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죄인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적극 대적하는 반역자이다. 만일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에 굴복하기보다 그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육신은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것은 없어진 “성향”일 뿐 아니라 능력이다. 육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

8:8 그러므로 당연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아무 선한 일도, 아무 종교적인 의식도, 아무 희생적인 봉사도, 도저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먼저 그는 죄인의 위치를 취하고 분명한 믿음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수 있다.

8:9 어떤 사람이 거듭날 경우 그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성

령 안에 있다. 그는 다른 영역에서 산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람은 대기 속에서 살듯이 신자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그가 성령 안에서 살 뿐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사신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비록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이 문맥에 잘 맞는 것 같다.

8:10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신자 안에 계신다. 특히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종노릇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다. 혹자는 본질이 말하는 듯 보이듯이 우리 몸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죽지 않았다. 하지만 죽음의 세력이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동안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 몸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몸과는 대조적으로 영²⁷⁾은 의로 인하여 산 것(생명)이다. 그것은, 비록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역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義)가 우리에게 전가된 까닭에 살아나게 되었다.

8:11 그러나 몸이 여전히 죽음에 복종한다는 사실로 인해 놀라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그분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죽을 몸도

27) (8:10) NKJV의 번역자들은 “프뉴마”를 성령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대문자 “S”로 표기한다. 맞소리 원본들은 모두 “대문자”이며 따라서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것이 신자(인간)의 영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살리신다는 보증이 되어 준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최종 행위(우리의 몸이 구주의 영광의 몸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가 될 것이다.

8:12 이제 육신과 성령간의 현저한 대조를 볼진대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 빛도 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육신의 지시대로 살 아무 의무도 없다. 악하고 타락한 옛 성품은 다름 아닌 멸망의 사자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선을 행하지 않았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육신이 우리를 깊고 어둡고 뜨거운 지옥 구덩이로 끌고 내려갈 것이다. 우리가 왜 그러한 대적에게 의무감을 느껴야 하는가?

8:13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곧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은 8장 4-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인 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 그들 중 일부가 영원히 잃어질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도는 그의 서신에 종종 경고와 자기 점검의 말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모든 회중 가운데는 진정 거듭난 적이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간파한데 기인한다.

본절 후반부는 진정한 신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묘사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들은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충만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8:14 참 신자를 묘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

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팔복할 사례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께 굴복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 취하는 관계의 문제이다.

양자됨(sonship)은 하나님의 가족에 영접되어 장성한 아들의 모든 특권과 책임을 소유하는 것을 암시한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영적인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가 구원받는 즉시 그의 소유이며 또한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된다.

8:15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종처럼 부림 받고 징벌의 두려움에 움츠러든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날 경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 즉, 성숙한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는 아람어로서 “아버지”란 단어(father, papa, daddy)와 유사한 형태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러한 친근한 단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할 수 있는데, 실은 무한히 높으신 그분은 또한 무한히 우리에게 친근하시다.

“양자의 영”²⁸⁾이란 문구는 신자에게 아들로서의 그의 특별한 위엄을 알게 해주는 분되시는 성령을 가리킨 말일 수 있다. 혹은 종의

28) (8:15) 27번의 각주를 참조하라. 여기서 영의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영이 아니라 종노릇과 상반되는 태도이다.

영과 대조되는 양자의 인식 혹은 태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양자”(adaptation)는 로마서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성령께서 신자의 삶에 생기게 하시는 아들 됨에 대한 의식을 가리킨다. 8장 23절에서 그것은 신자의 몸이 구속 혹은 영화롭게 될 그 때를 고대하며, 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아들로 지명하신 그 때를 돌아본다(출 4:22).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단어는 “아들의 위치에 됨”, 즉 모든 신자를 아들의 모든 특권과 책임을 지닌 성숙한 성인 아들의 위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가족 안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또한 아들(성인에 이른 자의 특권을 지닌 특별한 관계)이기도 하다.

신약성경에서 “양자”는 오늘날 사회에서 뜻하는 의미(다른 부모의 아이를 자식으로 취하는 것)가 아니다.

8:16 새로 태어난 신자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지각이 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신다. 성령께서 친히 그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신자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 그가 구주를 믿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다.

8:17 하나님의 가족에 일원됨은 상상을 초월한 특권들을 가져다 준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이다. 물론 후사는 결국 그의 부친의 재산을 상속한다. 그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다. 아버

지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장래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아무 것도 방해하지 못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이다. 그분께서 우주의 통치권을 취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부(富)에 대한 권리증을 그분과 함께 소유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덧붙인 것은 고난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큰 고난을 견뎌 내는 자들의 무리를 묘사한 것도 아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고난의 참여자로 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 보고 있다. 물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고난을 받는 이들이 있으며, 이는 여러 등급의 상급과 영광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은 여기서, 그 모든 멸시와 비방과 함께 세상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8:18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어떤 수치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군천사 앞에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실 때는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 순교의 극한 고통도 구주께서 그들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실 때는 바늘로 콕 찌르는 정도의 아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으로, 그리고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후 4:17). 장래의 영광을 묘사할 때마다 그의 언어는 그 개념의 중량감에 압도되는 듯 보인다.²⁹⁾ 만일 우리가 우리 것이 될 영광을 제대로 평가

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 따르는 고난을 극히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8:19 이제 바울은 고도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전체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놀란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의인화한다. 그 때는 주 예수님이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오는 때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거나 평가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세상은 더 좋은 날을 고대하고 있으며, 그 날은 왕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임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소유로 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JBP).

8:20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의 범죄는 인류만이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을 망라한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끼쳤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무참히 죽어간다. 질병이 날짐승과 물짐승 및 물고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죄의 결과는 충격파와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로 파문이 미쳤다.

따라서 바울의 설명대로, 피조물이 허무와 좌절과 혼돈에 굴복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첫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언에 의한 것이다.

8:21 피조물은 에덴에서 존재하던 이상적인 상태를 회고한다. 그

29) (8:18) 히브리어에서 “영광”에 해당되는 단어는 “무거워지다”는 동사에서 파생되며, 따라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로는 가리워진 의미를 볼 수 있다.

리고 죄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재앙을 둘러본다. 그들은 항상 이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 때가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중에 나타나는 그 영광스런 시대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것이다.

8:22 우리는 한숨과 눈물과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연의 음악은 음울한 분위기를 띤다. 땅은 격동으로 일그러져 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위에 드리워 있다.

8:23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탄식하며 그 영광의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성령 자신이 처음 익은 열매이시다. 익은 곡식의 첫 단이, 이어질 전체 수확을 보증해 주듯이 성령은 완전한 유업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보증해 주신다.

특히 성령은 장차 올 양자됨, 곧 몸의 구속을 보증해 주신다(엡 1:14).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아들로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가 우리의 영화롭게 된 몸을 받게 될 때 완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구속받았으며, 우리의 몸은 휴거시에 구속받을 것이다(살전 4:13-18).

8:24 우리는 이러한 소망의 태도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은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와 고난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을 고대하였다. 만일 우리가 이미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소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장래의 것이기 때문이다.

8:25 죄의 존재와 그 모든 해로운 결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며 따라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인 양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

8:26 우리가 그러한 영광스런 소망으로 말미암아 보전함을 받듯이 성령께서는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기도생활 중에 종종 당황해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 곤란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무지 가운데, 그리고 좁은 생각으로 기도드린다. 그러나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자 다가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신다. 물론 우리도 탄식하겠지만 본질에서 탄식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여기에는 신비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인격체와 위대한 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비록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탄식이 때로는 가장 신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한한 격려를 받을 수 있다.

8:27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면, 그분은 또한, 비록 그 생각이 탄식 중에서만 표현될지라도, 성령의 생각을 파악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같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다음 구절이 알려주듯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8:28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때때로 낙심과 좌절과 질병과 우환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서 무슨 선(善)이 나오겠는가 하고 의아해 한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그 답을 제시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에서 의문부호가 사라지게 된다. 우리의 삶은 운명과 같은 비인격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정하기에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실수하기에는 너무 지혜로우신” 우리의 놀라운 인격적인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8:29 이제 바울은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全貌)를 추적한다.

먼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니었다. 지식에 관한 한 그분은 모든 태어날 자를 아셨다. 그러나 그분의 미리 아심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분이 미리 정하신 자들만을 포용했다. 따라서 그것은 결

코 좌절될 수 없는 목적을 지닌 지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개하고 믿을 줄로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실 그분의 미리 아심은 궁극적인 회개와 믿음을 보증해 준다.

불경건한 죄인들이 은혜의 기적으로 언젠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이다. 물론,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다거나 그리스도와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분과 같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영광의 날에 그분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실 것이다. 그분은 동등한 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 최고의 영예의 자리를 취하시는 분이시다.

8:30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또한 때가 되어 부르심을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그러나 역시 가지 있는) 부르심이다. 그러나 오직 소수만 반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유효한(회개를 가져오는) 부르심이다.

반응을 보이는 모든 이들은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혹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신분을 얻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으며 그로써 하나님 존전에 서기에 적합하게 된다.

의롭다 함을 얻는 자들은 또한 영화롭게 된다. 사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너무도 확실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묘사하는데 있어 과거시제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양 영화롭게 된 상태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 중 하나이다. 하나님에 의해 예지되고 예정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얻을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요 6:37)

8:31 이와 같이 구속의 금사슬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결론은 필연적이다! 만일, 그분이 그분 자신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없다.³⁰⁾ 만일 전능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면, 그보다 못한 어떤 능력도 그분의 계획을 저지할 수 없다.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는 경솔히 이 말씀을 다름으로 그 광채를 흐리게 하거나 경배를 자아내는 그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잃어버린 인류가 죄 없는 대속자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을 때 우주의 크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장 아끼는 보화를 움켜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상실의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 사실로 말미암는 결론은 불가피하다. 만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분이 주시지 않을 그보다 작은

30) (8:31) 존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선물이 있겠는가? 만일 그분이 이미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그보다 적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시겠는가? 만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가셨다면 우리를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시겠는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신앙의 언어는 ‘어찌 그분이…하시겠느냐?’이고 믿음의 언어는 ‘어찌 그분이…아니하시겠느냐?’이다”라고 매킨토시는 말했다.³¹⁾

8:33 우리는 여전히 법정에 있는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이 앞에 서 있는 동안 고소할 자는 모두 앞에 나와 보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면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

만일 각각의 답변 앞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하기 때문이다”는 문구를 첨가한다면 본절과 다음 구절의 주장하는 바가 한결 분명해진다. 그렇게 되면 본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무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읽혀질 것이다. 그런 문구를 첨가하지 않은 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이 부인하는 그것인, 그분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실 것처럼 보일 수 있다!

8:34 또 하나의 도전이 울려 퍼진다! 여기에 정죄할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고를 위해 죽으시고 죽

31) (8:32) C. H. Mackintosh(이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심판을 받으신 주 예수님이 피고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다른 아무도 그를 정죄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8:35 이제 믿음은 그 마지막 도전장을 던진다. 여기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인간 삶의 다른 영역에서 분리를 초래하는데 효과적인 모든 불리한 상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검토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낙심과 고통의 압박을 가하는 환란의 도리깨질도, 몸과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곤고라는 괴물도, 뺏속까지 갹아먹는 기근이란 음험한 유령도, 약탈당함과 벌거벗김과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적신(赤身)도, 압박한 두려운 위험도, 그리고 차갑고 강인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칼도 어찌할 수 없다.

8:36 만일 그 중에 어떤 것이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의 연속이라 할 수 있기에, 그러한 치명적인 단절은 오래 전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된 까닭에 종일 죽임을 당하고 또 도살될 운명을 지닌 양과 같이 되었다고 한 시편기자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이다(시 44:22).

8:37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는데 성공할 뿐이다.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자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이다.³²⁾ 우리는

그러한 크나큰 세력들을 물리칠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선(善)을 가져온다. 우리는 대적을 종 삼고 걸림돌을 디딤돌 삼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쓰라림에서 달콤함을, 약함에서 강함을, 패배에서 승리를, 그리고 절망에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8:38 사도는 아직 점검을 마치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만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 우주를 샅샅이 살핀 다음 그럴 가능성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한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망”

유혹이 가득한 “생명”

능력과 지식에 있어 초자연적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인간 전제군주든 천상의 대적이든 “능력(들)”

우리를 압박하며 괴롭히는 “현재 일”

두려운 예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래 일.”

8:39 “깊음이나 높음”은 영물(靈物)을 포함해서 공간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을 말한다.³³⁾ 그런 다음 아무 것도 지나치지 않고 있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이제까지 바울이 살펴본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

32) (8:37) 문자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가 초월적으로 이기느니라”(super-conquer, “후페르니코멘”).

33) (8:39) 가령 이러한 문구는 천문학에서 사용된다.

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승리의 고백이 이제까지 순교자의 죽음을 죽은 자들의 노래요 순교자의 삶을 산 자들의 시(詩)가 되어온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2.

세대(경륜)적인 부분-복음과 이스라엘(9장-11장)

1. 이스라엘의 과거(9장)

9-11장에서 우리는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상 백성인 유대인에게 대한 그분의 약속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묻는 유대인 반대자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듣게 된다. 바울의 답변은 이스라엘의 과거(9장)와 현재(10장)와 미래(11장)를 망라한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다루는 성경의 주요 본문 중 하나이다. 10장은 그와 균형을 이루는 진리(인간의 책임)를 같은 강도로 진술한다.

☞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주를 주관하시며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부당하고 불의한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두려워하거나 구차하게 해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광스런 진리이며 우리로 경배를 자아내게 하기에 마땅하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개개인을 택하여 그분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르치는 같은 성경은 또한 인간의 책임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분명한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측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고, 인간의 측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서 발견된다(요 6:37). 우리는 신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즐거워한다(엡 1:4).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확실히 믿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계 22:17). D. L. 무디는 그 두 가지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구원에 문에 이르노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는 초청 문구가 그 위에 적힌 것을 본다. 그런데 그 문을 지나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입은 자여!’라는 문구가 위에 적힌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구원의 문에 이르는 자들은 인간의 책임이란 진리에 직면하며, 이미 그 문에 들어간 자들은 주권적인 선택이란 진리에 의해 환영을 받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택하여 그분 자신에게 속하게 하는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직 믿음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제시할 수 있으실까? 어떻게 우리는 이 두 진리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그들은 모순된다. 그러나 성경은 두 교리 모두 가르치며, 이에 우리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 있음을 아는데 만족한 채 그 교리들을 믿어야 한다. 그 쌍둥이 교리는 무한대에서 만 만나는 두 평행선과도 같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믿을 자들을 미리 아셨으며 그들은 그분이 구원받기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켜보려 노력했다. 그들은 로마서 8장 29절(“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미리 정하셨으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그 근거 구절로 인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지는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분은 누가 구주를 믿을지를 미리 아실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그분 자신에게 이끌음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미리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는 택하시지만 멸망 받을 자는 결코 택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경은 선택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유기(遺棄)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만일 하나님이 축복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을 택하신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택하시게 된다”라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어떤 임의의 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로 운명지어졌다. 설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신다 해도(그분은 의당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달리 운명지어진 소수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신부로 임

의로 택하실 권리가 있으신가?”하는 점이다. 그 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이렇하다. 만일 사람들이 버림을 받으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요, 만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은혜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주제는 마땅히 끊임없는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신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성품과 인격과 기질을 지닌 사람들을 보고 “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하고 의아해 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치명적인 선택을 하여
저 밖에서 주려 죽고 있는데
어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아이작 왓츠)

선택의 진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들의 불신앙을 변명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만일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내가 택함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택함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이다(살전 1:4-7).

또한 선택의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전도의 열정이 부족한 것을 변명하는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만일 그들이 택한 백성이면 결국 구원받을테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신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모든 사람들

에게 진실한 초청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초청이 진실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강박함 때문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피해야 할 위험이 있다. 첫째는 진리의 한 편만 붙드는 것인데, 이를테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믿고 인간이 자신의 구원과 관련하여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위험은 다른 진리를 희생하면서 한 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동등한 비중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경적인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중에 그러한 교리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이다. ♣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서 그러한 주제를 펼쳐 보이는 사랑 하는 사도의 논증을 살펴보기로 하자.

9:1-2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한 배신자요 배교자로 비쳐질 만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엄숙한 맹세를 통해서 유대 백성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을 강변한다. 그는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양심이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영광스런 소명을 생각하고 이어서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한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가득 찼다.

9:3 그는 그 자신의 구원을 빼앗김으로 그의 유대인 형제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조차 원했다. 이러한 강한 자기포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 표준의 인간애(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감동을 일으키는 것-요 15:13)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한 회심한 유대인이 그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 마음에 겪는 엄청난 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그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출 32:32).

9:4 그의 백성으로 인해 근심하는 중에 그들의 영광스런 특권들이 바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옛 택한 백성의 일원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분의 아들로 양자 삼고(출 4:22)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호 11:1).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이셨고(신 14:1) 에브라임은 그분의 장자였다(렘 31:9). (에브라임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쉐키나 혹은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에게였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 애굽의 강에서 유브라테에 이르는 땅을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언약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으신 것이었다(창 15:18). 그리고 “회개한 이스라엘의 불멸함과 장래의 회심과 축복”을 약속한 새 언약을 인치시는 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렘 31:31-40).³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였다. 그들이, 아니 그들만이 율법을 받았다.

성막 및 성전과 관련 있는 세세한 의식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제사장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위에 언급된 언약들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호와 평강과 번성에 대한 무수한 약속들을 주셨다.

9:5 유대 백성들은 족장들(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그들의 것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한다. 그 족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 가운데 최대의 특권(메시아께서, 비록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인 혈통에 관한 한 이스라엘 사람이시다)을 지녔다. 여기서 우리는 구주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분명한 진술을 보게 된다. (어떤 성경역본들은 본질의 위력을 약화시키는데, 가령 RSV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느니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에 찬양이 있으리라”고 옮기고 있다. 헬라어 원문을 엄격히 문법적인 관점에서 살피면 RSV와 같은 번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성경 대 성경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KJV, NKJV, 그밖에 보수적인 번역이 더 합당하다.)³⁵⁾

9:6 사도는 이제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만일 하나님이 그 택한 지상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들을 하셨다면 어떻게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이 거절당하고 이방인이 축복의 위치에 들어온 사실과 조화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약속이

34) (9:4) *The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p. 1317.

35) (9:5)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Hodge, *Romans*, pp. 299-301를 참조하라.

조금이라도 파기된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은 항상 단순한 혈통이 아닌 약속에 근거한 주권적인 선택을 해 오셨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태어난다고 해서 곧 그가 그 약속들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은 진실한 믿는 잔존자를 소유하신다.

9:7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의 자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에 속했다. 그러나 약속의 계보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왔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는 것이었다(창 21:12). 4장 12절에 대한 주해에서 지적했듯이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3-39절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야기하실 때 이와 동일한 흥미로운 구분을 보여주셨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descendants)이라”고 그분께 말했다(33절). 예수께서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descendants)인줄 아노라”고 그 점을 인정하셨다(37절). 그러나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자 주님은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children)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39절).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어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의 영적인 자손(children)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9:8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고 그분이 특별한 약속을 하시고 그분의 자손으로 인치신 유대인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서 그러

한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를 본다.

9: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한 때에 그분이 돌아오실 것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아들은 물론 이삭이었다. 그는 진실로 약속의 자녀요 초자연적으로 출생할 자녀였다.

9:10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야곱의 경우에 서 발견된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가 그 부모였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가 아니라 두 아이를 잉태했다.

9:11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 선언이 발해졌다. 따라서 그 선언은 자식들 편에서의 덕행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그 대상의 특성이나 성취도에 의하지 않고 그분 자신의 뜻에 근거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였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선하신 소원대로 은총을 베푸시는 그분의 결정을 의미한다.

본절은 우연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이 무엇을 행할지에 대한 그분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다는 생각을 반박한다. 본절은 특히 그것이 행위를 기초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준다!

9:12 하나님의 결정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야곱은 지상적인 영광과 특권을 받기로 선택되었다. 에서는 쌍둥이 중 큰 자였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러한 위치에 맞는 영예와 특권을 소유했을 것

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를 지나치고 야곱에게 머물렀다.

9:13 택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라기 1장 2-3절을 인용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민족, 즉 야곱과 에서가 머리로 있는 이스라엘과 에돔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친히 약속하신 민족으로 드러내셨다. 에돔은 그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대신 그 산들이 황무케 되고 그 산들은 광야의 사랑에게 붙여졌다(말 1:3; 렘 49:17-18; 겔 35:79).

물론 말라기 1장 2-3절 말씀은 개개인보다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를 묘사한 것이긴 하나 그것은 개개인을 선택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권리를 입증해 주는데도 사용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야곱을 더 좋아한 것은 사랑의 행위로 해석되는 반면에 에서를 지나친 것은 “비교에 의한” 증오로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혹하고 보복적인 적의감으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야곱을 주권적으로 택하신 데서 볼 수 있듯이 야곱보다 에서를 덜 사랑하신 것이었다.

본문은 영원한 삶이 아닌 지상적인 축복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신 것이 에돔 족속 개개인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듯이, 그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개개의 유대인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에서도 창세기 33장 9절에서 스스로 증거했듯이 얼마간 지상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주목

하라.)

9:14 사도는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 모든 종류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을 정확히 예견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공정하다고 비난한다. 만일 어떤 이들을 택할 경우 그 나머지는 필연적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죄하는 것은 불의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은 하나님 편에 “불의”가 있을 가능성을 극력 부인한다. 그는 반대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대신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아무 변명 없이 다시 언급하고 있다.

9:15 먼저 그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출 33:19).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천지의 주재되신 분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 권리가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징죄를 받는다. 만일 그들 홀로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복음 초청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것 외에 그들 징죄받은 사람들 중 일부를 그분의 은혜의 특별한 대상으로 선택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이들을 징죄받기로 임의로 택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은 일생에 걸친 죄인이요 또 복음을 거절했으므로 이미 징죄를 받았다. 택함 받은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 인해 하나

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버림받은 자들은 그들 자신 외에 아무도 탓할 수 없다.

9:16 결론인즉, 사람들 혹은 민족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그들의 의지력이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다.

바울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의지가 그 자신의 구원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복음 초창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분명히 사람의 의지를 겨냥해서 주어진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분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하셨다(요 5:40). 바울이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고 한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부인한 말이 아니다(눅 13:24). 어느 정도의 영적인 열심과 의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경주(競走)가 우선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폴간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편에서의 원함도, 우리 자신의 달음질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을 가져다주거나 그것이 제공해 주는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³⁶⁾

9:17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이들에게 공혹을 베푸는 데서만 아니

36) (9:16)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p. 335, 336.

라 다른 이들을 강박케 하는 데서도 엿보인다. 바로가 한 예로 인용된다.

여기에는 그 애굽 군주가 나면서부터 운명지어졌다는 암시가 일절 없다. 일의 경과를 이려했다. 그는 성인으로 지내던 중 사악하고 잔인하고 매우 완고한 인물로 판명되었다. 지극히 엄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두셨다.

9:18 바로는 거듭해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했으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하셨다. 얼음을 녹이는 그 동일한 태양이 진흙을 굳게 한다. 옷을 표백시키는 그 동일한 태양이 피부를 검게 타게 한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공혈을 베푸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를 강박하게 하신다. 은혜를 거절하면 은혜가 그를 거절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원하는 자에게 공혈을 베풀고 원하는 자를 강박하게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까닭에 결코 불의하게 행하지 않으신다.

9:19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다는 바울의 주장은, 만일 그렇다면 아무도 그분의 뜻을 성공적으로 거절할 수 없으므로 그분은 아무도 책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반론을 야기한다. 반대자에게 있어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무기력한 존재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언행도 그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

9:20 사도는 먼저 자신의 창조주를 감히 비난하는 피조물의 오만무례함을 꾸짖는다. 죄와 무지와 연약에 싸인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그분의 섭리의 어떠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

9:21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사용한다. 토기장이가 어느 날 토기공장에 와보니 바닥에 진흙이 뭉쳐 있다. 그는 진흙을 한 덩이 떼어 손으로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든다. 그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을까?

물론 토기장은 하나님이고 진흙은 범죄한 버림받은 인간이다. 만일 토기장이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모두 지옥에 보내질 것이다. 설령 그것을 홀로 버려둔다 해도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그분은 한 무리의 죄인을 주권적으로 택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신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실까? 그분이 다른 이들을 지옥에 이르도록 임의로 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자신의 완고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이미 운명지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진흙 한 덩이로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한 덩이로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 모두가 무가치한 상황에서 그분은 택하신 곳에 축복을 베풀고 원하는 때에 그 축복을 거둬갈 수 있으시다. “모두가 합당치 못한 곳에서 요구될 수 있는 최선은 그분이 아무도 불의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반즈(Barnes)는 말한다.³⁷⁾

37) (9:21) Albert Barnes, *Barnes's Notes on the New Testament*, p. 617.

9:22 바울은 하나님을, 외관상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한 위대한 토기장이로 묘사한다. 한편으로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보이고, 죄를 징벌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기를 원하신다. 전자의 하나님의 의로운 냉혹함과 후자의 그분의 인자한 오래 참으심은 서로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의 논지는 “만일 하나님이 악인을 즉시 징벌하실 수 있는데도 큰 인내를 보이신다면 누가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란 표현을 주목하라. ‘진노의 그릇’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임의의 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불순종과 반역에 의해서 “멸하기로 준비되었다.”

9:23 만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자들(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미리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면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C. R. 어드만의 설명이 특히 도움이 될 듯하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행사되지 않고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³⁸⁾

하나님은 멸망당할 진노의 그릇은 예비하지 않지만 영광 받을 긍휼의 그릇은 예비하신다.

9:24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세계 모두에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밝힌다. 이것은 뒤

38) (9:23) Charles R. Erdman,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p. 109.

에 이어질 많은 내용(이스라엘 민족이 소수 잔존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제쳐지고 이방인이 특권의 위치에 부름 받는 것)의 기초를 놓아준다.

9:25 사도는 이방인의 부름이 유대인에게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호세아서에서 두 구절을 인용한다. 첫 번째는 호세아 2장 23절이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회복될 날을 대망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여기 로마서에서 인용할 때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에 적용하고 있다. 바울은 어떤 권세로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까? 그 답은, 처음 그 말씀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후에 그것을 재해석 내지 재적용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이다.

9:26 두 번째 구절은 호세아 1장 10절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다시 한 번, 그 구약의 배경에서 이 구절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장래에 회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구약을 신약에 인용하실 때 그 뜻대로 정당하게 적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한 예이다.

9:27 9장 27-29절에는 소수 잔존자를 제외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당했음을 보여준다. 이사야는 비록 그 민족 자체는 엄청난 수로 증가하겠지만 소수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사 10:22).

9:28 이사야가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사 10:23)라고 말한 것은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추방당하는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役事)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그의 시대에 재차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9:29 이사야가 미리(그의 예언의 앞 부분에서) 말한 대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약간의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절되었을 것이다(사 1:9).

9:30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시대에 관계되는 한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첫 번째 결론은, 의를 좇지 않고 오히려 악을 좇은, 그리고 분명히 그들 자신이 이룬 의를 좇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만 의롭다 함을 얻었다.

9:31 반면에 율법 준수에 근거한 칭의를 추구한 이스라엘은 의를 얻을 수 있는 법을 발견치 못했다.

9:32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은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기를 거절하고 개인적인 공로로 그들 자신의 의를 이뤄보려는 노력을 완고히 고집했다. 그들은 부딪힐 돌,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힌 것이다.

9:33 이것이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것이다. 메시아의 예루살렘에 오심은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분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사 8:14). 다른 이들은 그분을 믿고 부끄러움과 상실 혹은 좌절을 당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치 못할 것이다(사 28:16).

2. 이스라엘의 현재(10장)

10:1 바울의 가르침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혐오스런 것이었다. 그들은 그를 반역자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서신의 대상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그의 마음에 최고의 기쁨을 주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가장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0:2 사도는 그들을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라고 정죄하는 대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증거한다. 이것은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에 대한 세심한 준수와 모든 거스리는 교리들을 일절 용납치 않는 그들의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은 진리와 결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유익보다 해를 더 끼칠 수 있다.

10:3 이 점에서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義)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의 원리로 의(義)를 전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 자신의 의(義)를 세우려고 애써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힘썼다. 그들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기를 완강히 거절했다.

10:4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다면 그분이 의(義)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고 범법자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의(義)를 줄 수 없다. 파기된 율법의 형벌은 죽음이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범한 율법의 형벌을 치르셨다.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면 율법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 그의 구속주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율법에 대해 죽은 상태이다. 그는 율법과 그리고 율법으로 의(義)를 이뤄보려는 무모한 시도에 중지부를 찍은 것이다.

10:5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말과 믿음의 말의 차이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8장 5절에서 모세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義)를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살 것이라고 기록한다. 거기서 강조점은 그의 성취와 그의 행함에 있다.

그 말씀은 물론 어떤 죄인도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율법을 영원히,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

은 이미 죄인이며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설령 그들이 그 날 이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義)를 얻으려 하는 일체의 희망은 그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이다.

10:6 믿음의 언어는 율법의 언어와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줄 목적으로 바울은 먼저 신명기 30장 12-13절 말씀을 인용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흥미로운 점은 신명기의 문맥에 의하면 이 구절들은 전혀 믿음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특히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에 대한 말씀이다(신 30:10).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숨겨지거나 멀리 있거나 접근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사람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주 가까이 있으며 준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취하여 복음에 재적용한다. 믿음의 언어는 사람에게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일단 그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전혀 불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육신을 통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10:7 사도는 신명기 3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누가 바다를 건너 가서”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로 바뀌었다. 그가 말하는 요지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기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10장 6-7절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교리(그분의 성육신과 부활)를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10장 9-10절에서 그 두 교리를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10:8 만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거나 이미 주님께 의해 이뤄진 일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바울은 신명기 30장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여 복음은 가까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또 쉽게 얻어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친근한 말로 표현될 수 있으며(“네 입에 있으며”), 마음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네 마음에 있다”, 신 30:14). 그것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파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다.

10:9 그것은 아주 간결하다. 먼저 우리는 성육신, 즉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아기가 생명과 영광의 주님이라는 진리와,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진리를 그 속에 담긴 모든 의미와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을 마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만족히 여기셨다는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한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位)와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다.

“예수님을 또한 주님으로 시인함 없이 구주로만 영접해도 구원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된다. 성경은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는 모시지만 그분을 만물의 주로 받들고 싶지는 않아”라는 식으로 유보적으로 믿는 사람은 일절 지지하지 않는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그분이 어느 정도 주님으로 시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절대완전하게 주님께 굴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임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여호와-하나님)이시며 주님으로 인정되셔야 한다는 점도 죄인들과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10:10 이어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적인 존재 전체로 진

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그런 다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즉, 자신이 이미 받아 들인 구원을 외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시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불가불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에 대해 확실히 말해야 한다.” 뵈가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할 것이다. 것처럼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비밀로 간직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경우 그는 그 구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된다고 시사해 준다. 구원과 시인은 함께 간다. 켈리는 “만일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³⁹⁾ 그리고 데니(Denney)는 이렇게 설명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실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의 두 측면이다.”⁴⁰⁾

10장 9절에서는 시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데 10장 10절에서는 왜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시인이 오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9절에서는 강조점이 성육신과 부활에 있으며 그 두 교리가 연대순으로 언급되어 있다. 성육신(예수께서 주님이시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활(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이 온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강조점이

39) 40(10:10) William Kelly, *Not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p. 206.

40) (10:10) James Denney, *quoted by Kenneth Wuest in Roma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p. 178.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에 있다. 먼저는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구원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10:11 사도는 이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할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실은 그 반대이다.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분이 우리를 시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소망이다.

“누구든지”란 말은 다음 내용(즉, 하나님의 영광스런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으로 연결 짓는 고리 역할을 해 준다.

10:12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알았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유용성에 관한 한 아무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된다. 주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주님이시다. 그분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공훈이 풍성하시다.

10:13 복음의 보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엘 2장 32절이 인용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단순한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말해 준다.

10:14 그러나 그러한 복음은 우주적인 선포를 전제로 한다. 만일 그들이 듣지 못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제시된 구원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느끼게 된다!

세 번에 걸친 “어찌…” (“어찌 부르리요…어찌 믿으리요…어찌 들으리요?”)를 통해서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오는 단계들을 돌아본다. 아마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뒤바꿔보면 그 뜻이 한결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보내신다.

그들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을 듣는다.

듣는 자들 중 일부가 그 메시지를 믿는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부른다.

그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결과를 의도하시면 그분은 그 결과에 도달할 수단도 의도하신다는 원리에 기초한 논증이라고 하지는 지적한다.⁴¹⁾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기독교 선교 운동의 기초이다. 바울은 여기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변명의 여지없는 과오로 간주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변호하고 있다.

10:15 하나님은 보내는 분이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들이다. 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사야가 좋은 소식

41) (10:14) Hodge, *Romans*, p. 545.

을 가져오는 분의 것으로 돌린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사 52:7). 이사야는 그분, 즉 메시아의 아름다운 발에 대해 묘사했다. 여기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그”는 “그들”이 된다. 그분은 1900여 년 전에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오셨다. 이제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잃어버린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10:16 그러나 바울이 늘 가슴에 지니던 슬픔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복음을 청종치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사야가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사 53:1). 그 질문은 “소수뿐이다”는 대답을 요구한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선언이 발해졌을 때 소수만이 반응했다.

10:17 이 이사야서의 인용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선지자가 말한 믿음은 들은 메시지에서 오며, 그 메시지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홍정역의 표현임-역주)으로 말미암는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믿음은, 물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전파를 들을 때 사람들에게 온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듣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에 내맡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며, 진리는 그 스스로 권위를 입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본절에서 말하는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를테면 메시지가 눈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듣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10:18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다. 바울은 그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편 19:4 말씀을 인용한다. “그렇지 아니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시편 19편 말씀은 복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씀은 그보다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의 시대에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된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도는 종종 구약의 구절을 취하여 매우 상이한 의미로 적용시키곤 한다. 최초로 말씀을 허락하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이후에 그것을 재적용할 권리를 가지셨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10:19 이방인이 부름 받은 것과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질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소유한 성경이 장차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백성 아닌 자(이방인)로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미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신 32:21).

10:20 이사야는 더욱 담대한 어조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구하지 않던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문의하지 않던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했다(사 65:1). 전반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이방 종교에 만족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복음에 순응했다.

10:21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모여든 것과 대조적으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셨으나 불순종과 완고한 거절을 당하신 모습을 묘사했다.

3. 이스라엘의 미래(11장)

11:1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떠한가? 어떤 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마감하셨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이제 교회에 적용된다는 것이 사실인가?⁴²⁾ 로마서 11장은 모든 성경 중에 그러한 견해를 가장 강력하게 반박하는 한 장이다.

바울이 서두에 던진 질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즉 개개의 이스라엘인 모두가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의미이다.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비록 11장 15절에 분명히 언급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긴 했지만 그것이 그분이 그들 모두를 거절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울 자신이 그

42) (11:1) 이스라엘의 축복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많은 이들이 예언된 저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몹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러한 버림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어찌되었든 그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였다.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신임장은 논박의 여지가 없었다.

11:2 따라서 본절의 첫 문장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상황은 엘리야 시대에 존재하던 상황과 흡사했다. 대다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이켰다. 상황이 몹시 악화되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대신 송사하는 기도를 올렸다.

11:3 그는 여호와께 어떻게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여 그 소리를 침묵시켰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 마치 그에게는 그의 소리만이 하나님을 위한 유일한 남은 신실한 소리이며 그의 생명은 임박한 위협에 처한 듯 보였다.

11:4 그러나 상황은 엘리야가 두려워한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좇아 바알에게 숭배하기를 계속 거절한 7천명을 친히 남겨 두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상기시키셨다.

11:5 그 때에 사실이었던 것이 지금도 사실이다. 하나님은 결코 증인 없이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그분 자신에 의해 그분의 은혜의 특별한 대상들로 택함 받은 신실한 잔존자를 소유하신다.

11:6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은혜로 그러한 잔존자를 택하신다. 이 두 가지 원리(은혜와 행위)는 상호 배타적이다. 선물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은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가 아닌 은혜에 기초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도 택함 받지 못했을 것이다.

11:7 결론인즉,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아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추구한 까닭에 의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잔존자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백성들은 사법적인 소경됨이라고 할 수 있는 곤경을 당하였다.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것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능력과 성향의 결여를 가져온 것이다.

11:8 이것은 구약성경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일이다 (사 29:10; 신 29:14).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실재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는 혼미한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셨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보기를 거절한 까닭에 이제 그분을 볼 능력을 상실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은 까닭에 이제 영적인 소경됨을 겪게 되었다. 그 두려운 심판은 바로 오늘날까지 계속된다.

11:9 다윗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했다. 시편 69편 22-23절에서 그는 거절당한 구주께서 저들의 밥상이 울무와 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여기서 “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특권과 축복의 총합을 의미한다.

복이 되어야 할 것이 화(禍)로 변한 것이다.

11:10 그 시편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구주께서는 또한 저들의 눈은 어둡게 하고 저들의 등은 수고함으로 혹은 나이가 들어 굽게 해달라고(혹은 저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11:11 이제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가? 여기서 우리는 “마침내” 혹은 “영원히”란 말을 추가해야 한다. 저희가 넘어져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실족했는가? 사도는 그러한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 그분의 목적은 저희의 넘어짐의 결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고 그로써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데 있다. 그러한 “시기”는 이스라엘로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본절과 다음 구절에서 그 사실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영원히 마감했다는 견해는 완강히 부인한다.

11:12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쳐졌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넘어짐은 세상의 부요함을 의미했고 이스라엘의 손실은 이방인의 소득이었다.

그것이 사실일진대, 하물며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세상에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주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이 대환란 끝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들은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11:13 여기서 사도는 “이방인”을 향해 이야기한다(11:13-24). 어떤 이들은 그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은 다른 청중, 즉 이방 민족들이 대상이 될 것을 요구한다. 바울이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민족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가 찍힐 가능성을 직면하는데(11:22)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으므로 그들에게 매우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무척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11:14 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의 동족인 자들을 시키게 하여 그 중 얼마를 구원하는데 자신이 사용되기를 바랐다. 그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으며 또한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분의 종들과 매우 동일시하여 그들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하도록 허락하신다.

11:15 본절은 11장 12절의 주장을 다른 어조로 되풀이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지상 백성으로서 버림받자 이방인이 특권의 위치로 인도되었으며 그로써 상징적인 의미에서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동안 회복될 때 그것은 전 세계적인 중생 혹은 부활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요나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

다. 요나가 폭풍이 이는 동안 배에서 던져지자 한 배를 채운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그러나 요나가 회복되어 니느웨에 메시지를 전하자 한 도성을 가득 메운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것처럼 하나님에 의한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거절당함은 말하자면 한 줌 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엄청난 수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다.

11:16 이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한다. 첫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 및 떡덩이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뿌리와 가지에 관한 것이다. 처음 익은 곡식과 떡덩이는 곡식이 아닌 곡식 가루 떡에 대해 말해준다. 민수기 15장 19-21절에서 우리는 곡식 가루 떡 한 덩이가 여호와께 거제로 바쳐졌음을 볼 수 있다. 요지인즉, 곡식 가루 떡 한 덩이가 여호와께 성별되면 그 곡식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루 떡이 성별된다는 것이다.

적용을 하자면 처음 익은 곡식은 아브라함이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성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했다.” 만일 그것이 그에 대해 사실이려면 그의 택함 받은 후손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특권의 자리로 성별된 것이다.

두 번째 비유는 뿌리와 가지이다. 만일 뿌리가 성별된다면 가지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은 열방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뿌리”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성별되었다면 택함 받은 계보 내에 있는 그의 후손들도 그러하다.

11:17 사도는 계속해서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언급한다.

“꺾여진” 가지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믿지 않는 자들을 묘사한다.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의 자리에서 제거되었다. 그러나 가지 중 일부만이 제거되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남은 이스라엘인은 주님을 영접했다.

“돌 감람나무”는 한 백성으로 본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여전히 믿는 이스라엘 잔존자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은총의 위치를 함께 소유한다.

이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의 주된 줄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 세기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특권의 계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 줄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꺾여졌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지는 기괴한 그림이 연상될 것이다.

또한 돌 감람나무 가지는 교회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본 이방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단절될 가능성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미 그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한 바 있다(롬 8:38-39).

나무줄기가 여러 세기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특권의 계보라고 할 때 그 “특권의 계보”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친근히 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어떤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들은 나머지 세상과 구별되고 특별한 권리를 가졌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은총 입은 민족의 지위”라고 부를 만한 축복을 누렸다.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그분은 줄곧 특별한 무

리를 소유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특권의 계보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고대의 택한 지상 백성이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까닭에 그 가지 중 일부가 꺾여지고 그로써 “은총 입은 아들”의 위치를 상실했다.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뿌리”는 특권의 계보가 시작된 아브라함을 가리키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은 그 생산력, 즉 풍부한 감람 열매와 거기서 나오는 풍부한 기름을 가리킨다. 여기서 “진액”은 참 감람나무와 연합된 데서 비롯되는 특권들을 상징한다.

11:18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하여 거룩한 체하거나 우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자궁하는 태도는 자신들이 특권의 계보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특권의 계보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보에 의해 그들의 현 위치, 즉 특별한 은총의 위치에 놓인 자들이다.

11:19 바울은 자신이 더불어 이야기하는 가상의 이방인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대인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와 다른 이방인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11:20 사도는 그 말이 부분적으로 옳다고 인정한다. 유대인 가지들은 꺾이었고 이방인이 접붙여졌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지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특별한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방인이 접붙여진 것은 그들이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썼기 때문이다. “믿으므로 썼느니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참 신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서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한 이방인 백부장을 가리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눅 7:9). 그리고 바울은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행 28:28).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는 말을 주목하라. 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보다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여기서 “서다”는 “넘어지다”의 반대이다. 이스라엘은 그 특권의 위치에서 넘어졌으며(떨어졌다) 이방인들이 그 위치로 접붙여졌다. 그러나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방인은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11:21 만일 하나님이 특권의 계보에서 원가지들을 절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돌 감람나무 가지들을 살려두시리라고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11:22 이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대조적인 측면(그분의 인자와 위엄)을 본다. 그분의 엄위는 이스라엘을 은총 입은 민족의 지위에서 제거하신 데서 나타나 있고 그분의 인자는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돌이키신 데서 나타나 있다(행 13:46; 18:6). 그러나 그 인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도 구주께서 지상사역 동안 발견하신 그 상대적인 열린 마음(마

8:10; 눅 7:9)을 견지하지 않으면 찍힐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바울이 교회나 개개의 신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방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머리를 떼어낼 수 없으며, 아무것도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그러나 이방 백성들은 현재 누리는 특권의 위치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11:23 그리고 이스라엘이 꼭 단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민족적인 불신앙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최초의 특권의 위치로 되돌리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1:24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권적인 백성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은 이방인을 그러한 위치에 두시는 것보다 한결 덜 무리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의 나무에 붙은 최초의 가지였으며 이에 그들은 “원가지”로 불리운다. 이방인 가지들은 돌 감람나무에서 나왔다. 돌 감람나무 가지를 경작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비자연적인 접붙임으로서 바울의 표현대로 “본성을 거스린” 것이다. 원가지를 그 원래의 경작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런 과정이다.

11:25 이제 사도는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을 하나의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사실임을 밝힌다. 바울이 지금 밝히는 것은 비밀, 즉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지성

으로는 알 수 없었으나 이제 알려지게 된 사실이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민족적으로 유대인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비밀은 아래와 같다.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인 소경됨이 일어났다.” 그 일은 모든 백성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러한 “소경됨”은 일시적이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계속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마지막 수가 교회에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이 하늘 본향으로 들어 올려지는 때를 가리킨다. 이 때는 이방인의 때(눅 21:24)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휴거와 일치된다. “이방인의 때”는 바벨론 유수(幽囚)에서 시작해서(대하 36:1-21)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끝나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전 기간을 가리킨다.

11:22 이스라엘의 사법적인 소경됨이 휴거 때에 제거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그 즉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다. 유대인은 환란 기간 내내 회심할 것이나 선택된 잔존자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지상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구원받을 것이다.

바울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믿는 이스라엘을 가리킨 말이다. 그 민족 중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멸망할 것이다(슌 13:8-9). 오직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는 자들만이 보존함을 입어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한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이때를 가리킨 것이다(사 59:

20).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 오심이 아니라 시온에 오심, 즉 그분의 재림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1:27 그 때는 하나님이 새 언약 아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것이라고 한 이사야 27장 9절과 예레미야 31장 33-34절에 언급된 때와 동일하다.

11:28 따라서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아가도록 버림받고 제척되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원수된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모습에 불과하다. “택하심으로 하면 저희는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11:29 그들이 여전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폐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를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 한번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으면 그분은 결코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9장 4-5절에 열거된 특권들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나머지 열방과 분리된 그분의 지상 백성으로 부르셨다(사 48:12). 아무것도 그분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11:30 이방인들은 전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순종치 않는 백성이었으나 이스라엘이 메시아와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

는 긍휼 가운데 이방인에게 돌이키셨다.

11:31 이와 다소 유사한 상황이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뒤에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인하여 시기가 될 때, 긍휼이 따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나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뤄질 것이다(11:26-27).

11:32 처음 이 구절을 대하면 하나님이 임의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불신앙에 처하게 했으며 그들이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요지가 아니다. 불신앙은 그들 자신이 범한 것이다. 본절이 말하는 바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순종치 않는 것을 보니 마치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그러한 상황에 가두어 두사 그분의 방법 외에 달리 아무런 출구도 없게끔 하신 듯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실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여기에는 보편 구원에 대한 암시가 일절 없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셨고 장차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지만 이것이 만인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민족적인 계보를 따라 베풀어지는 긍휼이다. 조오지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과 이방 민족 모두를 시험하셨으나 둘 다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그분은, 아무 공로 없고 또 그들의 완전한 과오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모든 주장과 권리를 상

실당한 그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긍
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불신앙 가운데 가둬 두셨다.”⁴³⁾

11:33 결론적인 송영(送迎)은 서신 전체와 거기에 전개된 하나님
의 섭리의 오묘함을 회고한다. 바울은 이제까지 공의로운 하나님께
서 불경건한 죄인을 구원하면서도 여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는 구원
의 놀라운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또 인간에게, 아담이 그의 죄로 인해 잃
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어떻
게 은혜가 율법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예지(豫知)에서 영화(榮華)에 이르기까
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의 사슬을 추적했다. 그는 주권적
인 선택이란 교리와, 그 단적인 인간의 책임이란 교리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대적인 섭리의
공의로움과 조화로우심을 추적했다. 이제 찬양과 경배의 노래로 탄성
을 발하는 것 외에 달리 적절히 반응할 수 없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하나님의 부요함이여! 그분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신실함과 능
력과 선함에 있어 부요하시다.

하나님의 지혜여!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고 비할
데 없고 극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식이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
신다. 가능한 모든 것, 실제적인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
든 사건과 모든 피조물을 아신다”라고 아더 W. 핑크는 말한다.⁴⁴⁾

43) (11:32)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871.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깊어서 죽을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창조와 역사와 구속과 섭리를 배열하는 “길”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을 뛰어넘는다.

11:34 떤 피조물도 그분이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범위 외에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때조차도 우리는 거울로 희미하게 볼 뿐이다(고전 13:12). 아무도 하나님에게 조언할 자격이 없다. 그분은 우리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신다(사 40:13).

11:35 무도 하나님을 빗쟁이로 만들 수 없다(욥 41:11). 우리의 어떤 선물이 영원하신 분으로 하여금 값을 의무가 있는 위치에 있게 할 수 있겠는가?

11:36 능자는 모든 것에 충만하시다. 그분은 모든 선(善)의 근원 이시며 우주를 지탱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시며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되신다. 만물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은바 된 것이다. 진실로 그렇게 될지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44) (11:33) Arthur W. Pink, *The Attributes of God*, p. 13.

3. 의무적인 부분-복음과 삶(12장-16장)

로마서의 남은 부분은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바울은 다른 신자들, 지역 사회, 대적, 정부 및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설명해 준다.

1 개인적인 성별에 있어(12:1-2)

12:1 1장부터 11장에서 서술된 바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진지하고 경건하게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결론, 즉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지체와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해 준다.

전적인 헌신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다. 그 까닭인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영국의 유명한 운동선수인 C. T. 스티드는 말했다.⁴⁵⁾ 아이작 왓츠의 유명한 찬송시도 같은 사실을 말

하고 있다. “놀랍고도 신비한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요구하네.”

신자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죽은 짐승의 몸이 아니라 양도된 삶이라는 영적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봉사(롬 15:16) 찬미와(히 13:15) 그리고 우리의 소유(히 13:16)를 예물로 드린다.

12:2 둘째로,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혹은 필립스가 풀어쓴 대로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그 주물 속으로 너희를 밀어 넣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 사용된 “세상”(문자적으로 “시대”)이란 낱말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만들어놓은 사회 혹은 체제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다. 이 세상의 신과 임금은 사단이다(고후 4:4; 요 12:31; 14:30; 16:11).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종이다. 그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및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로잡으려 애쓴다(요일 2:16). 세상은 그 자신의 정치와 예술, 음악, 종교, 오락,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을 지니며, 모든 사람으로 그 문화와 풍습을 본받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과 같이 그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증오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셨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불충성하는

45) (12:1) Norman Grubb, *C. T. Studd, Cricketer and Pioneer*, p. 141.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일이 악하며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다고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성경에 계시된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혐오스럽고 냉혹한 대신에 선하고 기뻐하고(받아들일 만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첫째는 드러진 몸이고 둘째는 성별된 삶이며 그리고 셋째는 변화된 마음이다.

2. 신령한 은사를 통한 섬김에 있어서(12:3-8)

12:3 바울은 여기서 주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다. 그는 각양 형태의 곧은 생각과 굽은 생각을 다룰 참이다.

먼저 그는 복음에는 우월의식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일절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을 시기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각 사람은 독특하며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몸 안에

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위치에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다해 은사를 활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2:4 사람의 몸은 많은 지체가 있으나 각 지체마다 독특한 역할이 있다. 몸의 건강과 복지는 지체마다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달려있다.

12:5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이다. 그 몸에는 일체성(한 몸)과 다양성(많은 지체) 및 상호 의존성(서로 지체가 됨)이 존재한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은사는 이기적인 용도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은사도 홀로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은사도 불필요하지 않다. 이 모든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곧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12:3).

12:6 바울은 이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목록은 모든 은사를 망라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은사에 대해 자세히 규명하는 대신 대략적으로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은사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야 한다.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다. 미래의 일을 알리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예언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력 아래 말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교리적인 진리나 현재의 의무, 혹은 장래의 사건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이었다고 핫지(Hodge)는 말한다.⁴⁶⁾ 그들의 사역이 신약성경에 우리를 위해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 체계에 아무런 영감 받은 예언이 추가될 수 없는데 이는 믿음이 영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유 3절). 이와 같이 오늘날 선지자란 단순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스트롱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올바른 현대적인 예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재 선포(성경에 이미 계시된 진리의 선포 내지 해설)에 불과하다.”⁴⁷⁾

우리 중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야 한다. 이것은 “믿음의 법칙 혹은 표준을 따라”(즉, 성경에 발견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따라)를 의미할 수도 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를 의미할 수도 있다. 대부분 역본들은 여기에 “우리의”란 단어를 부여하지만 원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⁴⁸⁾

12:12 “섬김”은 주님을 위한 봉사를 뜻하는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그것은 오늘날 흔히 통용되는 것과 같은 성직자의 직업, 의무, 혹은 역할을 의미하지 않는다. 섬김의 은사를 가진 자는

46) (12:6) Hodge, *Romans*, p. 613.

47) (12:6) A. H. Strong, *Systematic Theology*, p. 12.

48) (12:6) 그러나 원문상 여기에 사용된 정관사는 사실 어떤 문맥에서는 대명사와 동일하다.

종의 마음을 가진다. 그는 종의 역할을 할 기회를 찾고 포착한다.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것을 청중의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자이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전념해야 한다.

12:8 “권위”는 악의 모든 모양에 대항하고 거룩함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성취에 매진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은사이다.

“구제”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돌아보는 마음과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 부으심이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

“다스리는” 은사는 지역교회 내의 장로들(혹은 감독들)의 일과 관계가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장로는 양떼들 앞에 드러나 관심과 부지런함으로 인도하는 목자이다.

“공훈”의 은사는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은 즐거움으로 행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모두 공훈을 베풀되 즐거움으로 베풀어야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 숙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머니가 연로하여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해지자 남편과 저는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되도록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차에 태워 바깥 구경도 시켜드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곁으로 행동하는 동안 제 마음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일상적인 계획이 방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쌓인 것입니다. 이따금씩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얘야, 네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없구나. 좀 웃어 보면 어때니?’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공황을 베풀고 있었지만 즐거움으로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3.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12:9-21)

12:9 이어서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및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대할 때 발전시켜야 할 몇몇 특성들을 열거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사랑은 가면을 써서는 안 되며 진실하고 순수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악을 미워하고 모든 선한 것에 속해야 한다. 여기서 “악”은 무정함과 악의와 증오의 모든 태도와 행동들을 의미하고, “선”은 그와 대조적으로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12:10 믿음의 권속 안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차가운 무관심이나 의례적인 영접으로가 아니라 친근한 관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높임 받는 것을 보는 것을 더 원해야 한다. 한번은 한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집회에 앞서 다른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 사람이 먼저 단에 올라갔다. 그의 차례가 되어 그가 단에 모습을 나타내자 우뢰와 같은 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그는, 그가 진실히 생각하기에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인 영예를 취하지 않으려고 신속히 옆으로 비켜섰다.

12:11 모팻의 훌륭한 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너희 열심을 시들지 않게 하고 영적인 불꽃을 유지하고 주님을 섬기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하신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인생은 짧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라.

우리의 연수는 나뭇잎의 떨어짐 같으니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네.

이 세상은 모두가 열심을 내고

살아야 할 세상이라네.”

(호라티우스 보나르)

12:12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우리 구주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몸의 구속 및 우리의 영원한 영광)중에 즐거워할 수 있으며 또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는 환란 중에 참으라는, 즉 환란 하에 용감히 견디라는 권면을 받는다.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는 인내야말로 그러한 시련을 영광으로 변케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일이 끝나고 승리가 얻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이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전능성에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12:13 직업을 잃은 성도, 수술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성도, 오

지에서 수고하는 잊혀진 전도자와 선교사들, 돌볼 사람이 없는 외로운 노 성도들 등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다. 참된 몸(교회) 생활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를 주저하지 말라”(JBP). 오늘날 우리는 “손 대접”의 미덕을 잃고 있다. 집이 비좁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기를 사양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접대하면 주님 자신을 접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을 잊고 있다. 우리의 가정들은 예수께서 즐겨 머무신 베다니의 가정과 같아야 한다.

12:14 우리는 우리를 뺨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양 갠음하려 하는 대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불친절과 가해에 대해 정중한 예의로 갠기 위해서는 신령한 삶이 요구된다. 우리의 본성의 반응은 저주하고 보복하는 것이다.

12:15 감정이입(感情移入)이란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는 시기하고 슬퍼할 때는 그냥 지나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의 즐거움과 슬픔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12:16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일치라 아니라 관계의 조화이다.

우리는 일체의 지위의식을 피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을 대할 때나 높고 부유한 자들을 대할 때나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터미널에 도착하자 그가 말씀을 전할 교회의 인도자들이 그를 맞이했다. 고급 승용차가 그를 멋진 호텔로 모셔갔다. “이곳을 방문하는 설교자들은 대개 어느 분 댁에서 묵지요?” 그가 물었다. 근처의 누추한 노부부 집에 묵는다고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곳이 바로 제가 묵고 싶은 곳입니다.”

다시금 사도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이 우리를 들뜬 자만심에서 지켜줄 것이다.

12:17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습관이다. 사람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복을 즐기는 마음은 구속받은 자들의 삶에 자리할 여지가 없다. 그 대신 그들은 삶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처럼 비방과 인신공격을 당할 때에도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도모한다”는 것은 “마음을 쓰다” 혹은 “...하려고 주의하다”라는 뜻이다.

12:18 그리스도인은 불필요하게 분을 드러내거나 다투려 해서 안 된다. 혈기와 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고 화평한 중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케 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케 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한다.

12:19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진 잘못에 대해 보복하려는 성향을 거부해야 한다.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 대신 그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라는 뜻일 수도 있고, 비저항의 정신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뒤의 내용으로 보아 전자의 해석(뒤로 몰려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것을 처리하게 하라)이 더 옳은 듯하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전권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권리에 속한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렌스키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범과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문제 전체를 오래 전에 해결해 놓으셨다. 그들 중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완전한 공의가 모든 경우에 완전히 실행될 것이다. 만일 우리 중 누가 그것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오만무례의 극치가 될 것이다.”⁴⁹⁾

12:20 기독교는 비저항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는 데로 나아간다. 그것은 무력으로 원수를 멸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원수가 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움으로써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이 표현이 잔인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숯불을 어떤 이의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뜻밖의 친절로 그를 놀라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적대적인 처신을 부끄러워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12:21 다아비는 본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만일 내 악한 기질로 인해 당신이 악한 기질의 지배를 받는다면 당신은 악에게 진 것이다.”⁵⁰⁾

49) (12:19) R. C. H. Lenski,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p. 780.

50) (12:21) J. N. Darby, From Footnote on Romans 12:21 in his *New Translation*.

훌륭한 흑인 과학자인 조오지 워싱턴 카버는 “나는, 나로 하여금 그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망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⁵¹⁾ 신자로서 그는 악이 그를 이기도록 허락하지 않고자 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소극적인 제지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격려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특징이다. 악은 선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보다 빈번하게 사용해야 할 무기이다.

스탠튼은 링컨을 몹시도 미워했다. 그는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서 원산(原産) 고릴라를 찾을 수 있는데 고릴라를 구하러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빈정거렸다. 링컨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참고 견뎠다. 이후에 링컨은 그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스탠튼을 국방장관직에 임명했다. 링컨이 저격당한 후 스탠튼은 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했다. 사랑이 이긴 것이다!⁵²⁾

4.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13:1-7)

13:1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은 인간정부에 굴복해야 한다. 사실 이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여기서 사도는 특히 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인간정부를 세우셨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고 하신 선언(창 9:6)은 인간에게 형사 문제를 판단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

51) (12:21) George Washington Carver(이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52) (12:21) Quoted by Charles Swindoll in *Growing Strong in the Seasons of Life*, pp. 69, 70.

모든 질서화 된 사회에서는 권위와 그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정부상태에 처하게 되며, 무정부상태 아래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어떤 정부든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정부를 세우신 것이며, 무정부는 그분의 뜻을 벗어나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그분이 인간 통치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은 분명히 부패와 잔학과 폭정은 인정치 않으신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다.

신자들은 민주주의 체제나 입헌군주제, 혹은 독재 체제에서도 능히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어떤 지상 정부도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낫지 못하다. 그것이 어떤 정부도 완전치 못한 이유이다. 유일한 이상적인 정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자비로운 군주제이다. 바울이 저 악명 높은 네로가 황제로 재임하던 당시에 인간정부에 굴복하라는 이 교훈을 기록했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암흑한 시대였다. 네로는 로마시의 절반을 소각시킨(아마도 그가 직접 명령을 내렸을지 모를)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다. 그는 신자들의 몸에 타르를 잔뜩 발라 산 채로 불을 붙여 연회를 밝히는 인간 횡포로 세워두었으며, 어떤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힌 채 미친개들에게 던져 갈기갈기 찢기게 했다.

1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에게 굴복하지 않거나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것이다. 합법적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가 죄를 범하거나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타협하라고 명할 경우 순종할 의무가 없다 (행 5:29). 어떤 정부도 인간의 양심을 다스릴 권리가 없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간의 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 신자는 묵묵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를 거스르거나 정부를 전복하는 시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13:3 선을 행하는 자들은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형벌을 두려워해야 할 자는 법을 어기는 자들뿐이다. 따라서 영장이나 금고, 재판, 투옥 따위에서 해방된 삶을 누리하고자 하면 법을 잘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권세들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13:4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판사든 모든 다스리는 자는 주님의 종이자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자이다.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를지라도 여전히 공적으로는 주님의 사자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거듭해서 악한 왕 사울을 가리켜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했다(삼상 24:6,10; 26:9,11,16,23). 사울이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왕을 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 그러했는가?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주님의 임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백성들의 선(그들의 안전과 평화와 복리)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집해서 법을 어긴다면 그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그를 법정에 세워 징벌할 권한이 있기 때

문이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부에 부여하시는 권세에 관한 강한 진술을 볼 수 있다. “칼”은 단순한 권세의 상징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는 홀이 더 적합한 비유일 것이다. “칼”은 통치자의 최상의 권세, 즉 극형(사형)을 집행할 권세를 말해주는 듯하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신약시대에는 없었고 구약시대에만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중대한 범법자의 목숨을 빼앗을 권세가 있음을 암시하는 신약의 진술이 있다. 사람들은 “살인하지(kill) 말지니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들어 반론을 제기한다.⁵³⁾ 그러나 그 명령은 불법적인 살인(murder)을 가리키며, 사형은 그런 살인이 아니다. 사형은 구약율법에서 일부 심각한 범죄들에 대한 의무적인 형벌로 명시되었다.

다시금 사도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상기시키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고 덧붙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뿐더러 범법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라는 것이다.

13:5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정부에 굴복해야 하는데 하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요,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는 바램 때문이라는 것이다.

13:6 우리는 정부에게 복종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세를 바침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도 있다. 법과 질서가 있는 사

53) (13:4) “죽이다”는 우리말 표현은 어감에 있어 다른 의미의 여지가 없다-역주.

회에서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입고 산다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며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져야 할 비용의 몫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관리들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쏟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13:7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빌 3:20)이 우리를 인간 정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수입과 부동산과 기타 사유재산에 부과되는 일체의 공세를 내야 한다. 우리는 상품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송되는데 대해 국세를 내야 한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 대해 마땅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복(公僕)의 직위와 직함에 대해 존경을 표해야 한다(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항상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이나 수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야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얘기로 온 세상이 시끌시끌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비방하는데 참여하기를 거절해야 한다.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행 23:5).

5. 장래에 대하여(13:8-14)

13:8 근본적으로 이 구절의 전반부는 “너희 빛을 제 시간에 갚으라”는 뜻이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빛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빛은 오늘날 사회에서 불가피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매

달 전화료,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등의 청구서를 받는다. 그리고 모종의 채무관계를 떠나서는 사업을 경영하기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지불만기를 넘기면서까지 과도한 빚을 지는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할 원리들이 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기 위해 빚을 저서는 안 된다. 값을 가능성이 없는데 빚을 저서도 안 된다. 할부구입을 습관화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해서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수입 안에서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잠 22:7).

언제나 바람직한 한 가지 빚은 사랑의 의무이다. 로마서에서 사랑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단어는 한 경우를 제외하고(12:10),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깊고, 이타적이고, 초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이다. 이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어떤 미덕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히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랑할 만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흘러나간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사랑과도 다르다.

이 사랑은 베품에서, 일반적으로 희생적인 베품에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감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이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 준다. 만일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압도하는, 다스릴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은 복잡다기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기가 불가능하다. 사실, 신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드러나질 수 있다.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位) 안에서 지상에서의 그 완전한 표현을 발견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서 모습을 나타낸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혹은 적어도 율법 중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부분을 다 이룬 것이다.

13:9 사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반하는 행위들을 금하는 계명들을 열거한다. 그것은 간음과 살인과 절도 및 탐심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으나 부도덕은 그렇게 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나 살인은 그렇게 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않으나 도적은 그렇게 한다.⁵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 그릇된 욕심을 품지 않으나 탐심은 그렇게 한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한두 가지를 더 언급할 수 있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모두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강령에 속해 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 사랑과 사려 깊음과 친절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54) (13:9) NU 본문은 이 계명을 생략한다.

13:10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랑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구한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행동하는 사람은 율법의 두 번째 부분인 인간에 대한 의무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13:11 본장의 나머지 부분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런 삶을 격려한다. 때가 가까웠다. 은혜 시대가 마감되고 있다. 시간이 짧아짐은 모든 게으름과 안일함이 제거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구원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구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인도하기 위해 곧 오실 것이다.

13:12 현시대는 막 그 길을 달려간 죄의 밤과도 같다. 영원한 영광의 “낮”이 곧 신자들을 위해 동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세속성의 옷, 즉 불의와 악에 연루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의 보호막을 의미하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갑옷의 요소는 에베소서 6장 14-18절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묘사해 준다.

13:13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 삶에 있음을 주목하라. 우리는 낮의 자녀이므로 빛의 아들들처럼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분쟁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과 관계할 것이 있겠는가? 당치도 않은 말이다.

13:14 우리가 좇아야 할 최선의 방침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

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살고, 그분을 우리의 인도자요 모본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타락한 옛 본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끊임없이 안락과 사치와 성문란과 허영심과 세속적인 쾌락과 방탕과 물질주의 등등에 탐닉하려 한다. 유혹을 불러일으킬 물건을 사거나, 우리 자신을 범죄하기 쉽게 만들거나,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육신이 주도권을 쥐고 마음대로 행동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JBP).

본문은 하나님께서, 탁월했지만 세속적이었던 어거스틴을 그리스도와 순결로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신 바로 그 구절이었다. 14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님께 굴복하고 말했다. 그는 그 후로 “성” 어거스틴으로 역사에 알려져 왔다.

6.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14:1-15:13)

14:1 로마서 14장 1절-15장 13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중요한 원리를 다룬다. 그것은 신자들 간에 종종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인데, 그러한 다툼은 우리가 곧 알게 되듯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근거 없는 기준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종종 회심한 유대인들이 음식과 안식일에 대해 까다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

다.

“첫 번째 원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의 교제에 받아들여 그의 지나친 반응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일치됨 없이도 즐거운 사귄을 가질 수 있다.

14:2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며 사는 사람은 신약의 가르침, 즉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는 가르침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졌다(딤후 4:4-5). 약한 양심을 가진 신자는 돼지고기나 그밖에 다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 있다. 그는 채식주의자일 수 있다.

14:3 따라서 “두 번째 원리”는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연약한 형제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 사람을 죄인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가족에, 좋은 지위를 가진 일원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4:4 “세 번째 원리”는 모든 신자는 주님의 종이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양 판단하는 자리에 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각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의 주인 앞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로 인해 그가 틀림없이 믿음에 파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차가운 눈길로 형제를 바라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양측에 있는 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그분의 능력은 충

분하다.

14:5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의무적인 날로 간주했다. 그들은 토요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겼다.”

다른 신자들은 그러한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 그들은 6일은 세속적인 날이요 하루는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모든 날이 거룩했다.

그러나 주의 첫 날인 주일은 어떠한가? 그 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가?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그 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알 수 있다(눅 24:1-9). 부활 후 이어지는 두 주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다(요 20:19, 26). 성령께서 오순절 날, 즉 주의 첫날에 임하셨다(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칠 주 후에 임했다-레 23:15-16; 행 2:1). 제자들은 주의 첫 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행 20:7).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주의 첫 날에 연보를 하라고 가르쳤다. 그와 같이 주의 날(주일)은 신약성경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두드러져 있다. 그러나 그 날은 안식일처럼 의무적인 날이라기보다는 특권의 날이다. 일상적인 일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그 날을 예배와 주님을 위한 섬김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구별해 놓을 수 있다.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즉 엿새 동안 일한 후 하루를 쉬는 안식의 원리는 받아들인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견해를 취하든 원리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는 것이다. 한편, 그러한 원리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문제들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에 이를 경우에는 개인적인 견해를 내세울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옳지도 그릇되지도 않은 영역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허용된다. 그러한 견해차가 영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14:6 이 구절에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는 토요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 유대인 신자를 말한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구원을 얻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생각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라고 여겨진 일을 행하는 문제로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날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믿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보다는(골 2:16-17) 실체, 즉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자유를 가진 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주신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채소만을 먹는 약한 양심을 가진 신자도 그렇게 행한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에 하나님이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니 어찌 그것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되어야 하겠는가?

14:7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죽는다. 물론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아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분의 백성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4:8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그리스도의 감찰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 보시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모든 일을 분별해 본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다.

14:9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원하는 종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즐거이 그분께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의 주되심은 우리의 몸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과 혼이 그분과 함께 있을 죽음에서조차도 지속된다.

14:10 그것이 사실인 까닭에, 과민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유대 율력을 지키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는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강한 형제가 약한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도 잘 못된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 때 비로소 중요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⁵⁵⁾

이 심판은 신자의 죄가 아니라 봉사와 관계가 있다(고전 3:11-15). 그 때는 평가와 시상의 때로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마 25:31-46)이나 백보좌 심판(계 20:11-15)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백보좌 심판은 모든 죽은 악인에 대한 최종 심판을 말한다.

55) (14:10) 일부 고대 맞소라 사본들(NL)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TR과 M 본문)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실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그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요 5:22).

14:11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 이사야 45장 23절의 인용을 통해 보강되었는데, 거기서는 모든 무릎이 그분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꿇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확인하고 계신다.

14:12 그 때에 우리 각인이 우리의 형제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 너무 많이, 그리고 적절한 권위나 지식이 없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14:13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형제의 영적인 진보에 방해가 될 일은 결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들 중 아무것도 형제를 실족케 하거나 넘어뜨릴 만큼 중요하지 않다.

14:14 바울은, 그것이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에, 어떤 식물도 더 이상 의식적으로 속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도 그 점을 알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딤후전 4:5).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분명히 말씀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보다 건강함 몸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러나 만일 어떤 연약한 형제가 가령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잘못이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의 양심을 범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만을 가리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삶 가운데는 음화(淫畵), 음담패설, 음란영화 등과 같은 불결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바울의 진술은 문맥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모세 율법이 불결하다고 판정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의식적인 부정을 범한 것이 아니다.

14:15 내가 어떤 연약한 형제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줄 알면서도 아무 고기나 임의로 먹을 권리를 주장해야 하겠는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데 이는 사랑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형제의 복을 위해 그 적법한 권리를 뛰어넘어 생각한다. 한 그릇의 식물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의 영적인 안녕만큼 중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에 있어 내 권리를 이기적으로 고집한다면 나는 연약한 형제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 그의 영혼이 엄청난 대가(어린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음을 기억할 때 과연 내가 한 일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14:16 여기서 말하는 원리인즉, 그 자체에 있어 허용해도 무방한 사소한 일들이 빌미가 되어 다른 이들을 우리를 보고 “절도가 없다”거나 “사랑이 없다”고 비방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그릇 식물로 인해 우리의 선한 이름을 희생시키는 처사이다.

14:17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음식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실재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로 인정되는 영역을 말한다. 가장 폭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 내적인 실재에 있어서는 거듭난 자들만 포함한다. 그것이 여기서의 용례이다.

그 나라의 신복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실질적인 “의”와, “평강”(화평)과 조화의 기질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희락”의 마음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14:18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강조하는 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

14:19 이로써 또 한 가지 원리가 나타난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로 다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 화평과 조화를 유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보다는 그들을 그들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4:20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각인의 삶에서 “사업”을 행하고 계신다. 먹고 마시는 것과 날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연약한 형제의 삶에 역사하는 그분의 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나 만일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형제를 상심케 하거

나 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림이 되게 하면 잘못을 범한 것이다.

14:21 형제의 마음을 상케 하거나 영적으로 하락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고기나 포도주나 다른 무엇이든 금하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의 적법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연약한 형제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 지극히 적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14:22 나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주신 것으로 아는 중에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을 완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 자유를 불필요하게 과시해서는 안 된다. 그 자유는 은밀하게, 아무도 상처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행사하는 것이 낫다.

근거 없는 규정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케 함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적법한 권리를 뛰어넘어 생각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14:23 연약한 형제에 관해 말하자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먹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에 대해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양심을 범하는 것은 죄이다.

물론 사람의 양심은 무오한 안내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메릴 엥거는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비록 그것이 연약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좇아야

한다는 법칙을 진술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인 인격성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⁵⁶⁾

15:1 15장 1-13절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루는 앞장의 주제를 잇고 있다.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과 이방 사회에서 회심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으며 이에 바울은 여기서 그 유대인 및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권면하고 있다.

강한 자들(즉,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지닌 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이기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스스로를 기쁘게 해서 안 된다. 그 대신 그들은 그들의 연약한 형제들의 지나친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여 친절과 사려 깊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15:2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세워 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모습이다.

15:3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분은 자신이 아닌 그분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시 69:9). 이것은 그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예에 깊이 사로잡히셨음을 의미한다.

15:4 이 시편의 인용은 구약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

56) (14:23) Merrill F. Unger, *Unger's Bible Dictionary*, p. 219.

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한 무한히 가치 있는 교훈을 담고 있다. 여러 문제들에 직면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며 위로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침체에 빠지는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인해 세움을 입게 된다.

15:5 이러한 생각은 바울로 하여금, 인내와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한 마음이 되게 해 달라는 바람을 표현하게끔 인도한다.

15:6 그러한 결과 성도들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데 있어 한 마음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한 입으로 주님께 경배드린다니!

로마서에는 “입”에 대한 네 차례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의 인생역정을 그려준다. 처음에 그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다(3:14). 그런 다음 그 입이 다물어진 채로 그는 범죄자로 심판장 앞에 끌려갔다(3:19). 이어서 그는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10:9). 그리고 끝으로 그의 입은 능동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있다(15:6).

15:7 이 모든 사실로부터 한 가지 원리가 더 나타난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서로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지역

교회의 영접의 참된 근거가 있다. 우리는 교파적인 유대관계나 영적인 성숙도나 사회적인 지위에 근거하여 영접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들을 받아야 한다.

15:8 다음 여섯 구절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도 그 두 부류 모두 포함할 만큼 넓어야 함을 암시한다.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할레자, 즉 유대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거듭 약속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러한 약속의 진실됨을 확증해 주었다.

15:9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축복을 끼치신다. 하나님은 열방이 복음을 들을 것과, 또 믿는 자들이 그분의 크신 공회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의도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성경에 빈번하게 예언된 까닭에 유대인 신자들에게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시편 18편 49절에서 다윗은 메시아가 이방인 신자들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날을 대망하고 있다.

15:10 신명기 32장 43절에서 이방인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15:11 시편 117편 1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천년 통치시에 주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15:12 끝으로 이사야는 메시아의 세계에 이방인이 포함될 것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한다(사 11:1-10). 여기에는 특별히 이방인이 메시아와 그분의 복음의 특권들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주 예수님은 이새에게서 나오시지 않고(물론 이 점도 사실이지만) 이새를 지으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이새의 뿌리이시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묘사하신다. 그분은 신성으로 하면 다윗의 창조자시며 인성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시다.

15:13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구하는, 은혜로운 축도로 이 부분을 마감한다. 아마 그는 여기서 특히 이방인 신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니 이 기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자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룰 시간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한가지로 품은 소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연합력이 되어 준다.

7. 바울의 계획에 있어서(15:14-33)

15:14 15장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서신을 쓰는 이유와 그들을 방문하려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피력한다.

비록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는 그들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일 줄을 확신했다. 이러한 확신은 그들의 “선함”에 대해 소식을 들은데 근거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이 기독교 교리

를 잘 알고 있으며 능히 다른 이들을 권할 수 있음을 확신했다.

15:15 그들의 영적인 진보에 대한 그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몇몇 특권과 책임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그러한 진솔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즉 그를 사도로 임명한 그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15:16 그는 하나님에 의해 이방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수종드는 제사장(serving-priest)으로 임명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치는 제사 직무로 간주했는데, 이는 그들이 중생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성별되었기 때문이다. G. 켈벨 몰간은 이렇게 환호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전도자요 목자로서의 노력에 얼마나 찬란한 빛을 던져 주는지! 복음전파를 통해 얻은 모든 영혼은 안전과 축복의 위치에 인도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즉 그분께 만족을 드리는 예물이요 그분이 찾는 바로 그 예물이 된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주의 깊게, 인내 가운데 배우고 그로써 그분의 형상을 닮게 된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서 기쁨을 취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이다.”⁵⁷⁾

15:17 만일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됴됨이

57) (15:16) Morgan, *Searchlights*, p. 337.

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성취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기를 기뻐하신 것 안에서이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은 적절치 못한 자람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자람에 대한 모든 유혹은, 자신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받은 것 외에 그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에 의해 제지된다.

15:18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것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려고 그의 말과 일을 통해, 즉 그가 전한 메시지와 그가 행한 기적을 통해 그를 사용하신 방법에만 국한시킨다.

15:19 주님께서서는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기적과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의 증거들을 통해서 사도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다. 그 결과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아드리아해에 위치한 마게도나 북부까지) 복음을 편만히 전파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일루리곤까지”란 표현은 그의 사역의 지리적인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연대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15:20 그 여정을 행하는데 있어 바울의 목표는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의 청중은 주로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 즉, 그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있었다. 바울이 새로운 영역에서 개척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주님의 종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들은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된 후에 그곳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5:21 이방인들 가운데 행해진 그러한 기초사역은 전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보고 깨닫고 참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52:15)의 성취였다.

15:22-23 경작되지 않은 영역에 쟁기를 대보려는 바람에서 바울은 그제까지 너무 분주한 나머지 로마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15장 19절에 묘사된 지역에 기초가 놓였다. 다른 이들이 그 터 위에 건축할 수 있었다. 오랜 숙원이던 로마 방문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5:24 그의 계획은 서바나(스페인)로 가는 길에 로마를 잠시 들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과의 교제를 충분히 즐길 만큼 오래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보려는 바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충족될 것이다. 아울러 그는 그들이 스페인 여행을 마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풀 줄을 알고 있었다.

15:25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교회들에서 모아진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고린도후서 8-9장에 기록된 연보이다.

15:26-27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신자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기쁘게 연보를 했다. 이 연보는 기증자 편에서 완전히 자발적인 한편 매우 합당한 반응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는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 따라서 그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유대인 형제들과 소유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15:28-29 바울은 약속대로 연보를 전하는 일을 마치자마자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로마 방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 그리스도께서 항상 부으시는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신했다.

15:30 사도는 그들의 기도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와 함께 이 부분을 마감한다. 그의 호소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들의 상호연합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사랑이다. 그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힘써 기도해 줄 것을 그들에게 당부한다. 렌스키의 표현대로 “이것은 경기장의 선수들처럼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 부는 기도를 요청한 것이다.”⁵⁸⁾

15:31 네 가지 구체적인 기도요청이 주어지 있다. 첫째로 바울은 그 자신이 전에 그러했듯이 광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의 열심당원들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로 그는 유대 성도들이 모금된 연보를 기쁜 마음으로 받도록 로마인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유대에는 이방인 신자들과, 이

58) (15:30) Lenski, *Romans*, p. 895.

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종교적인 편견이 존재했다. 따라서 “구제”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마음이 상할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연보는 종종 주는 편보다 받는 편의 은혜로운 태도를 필요로 한다!

15:32 세 번째 요청은 주님께서 로마 방문을 즐거운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란 표현은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바울의 바람을 표현해준다.

끝으로 그는 그의 방문이 험난하고 고된 사역의 와중에 심신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15:33 그리고 바울은 평강의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로 15장을 마감한다. 15장에서 주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5절), “소망의 하나님”(13절), 그리고 여기의 “평강의 하나님” 등으로 불리웠다. 그분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요 가련한 죄인이 이제와 영원토록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아멘.

8. 다른 이들에 대한 칭찬에 있어서(16장)

얼핏 보기에 로마서 마지막 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의 혹은 아무 의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인명록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상고해 보면 쉽게 지나쳐지는 이 16장은 신자를 위한 많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준다.

16:1 비비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중)으로 소개되어 있다.⁵⁹⁾ 우리는 굳이 그녀를 어떤 특별한 직분을 소유한 자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자매는 “일꾼”(집사)이 될 수 있다.

16:2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여행할 때마다 천거서를 소지하고 다녔다. 그것은 방문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정중한 예의의 표요, 방문자에 대해서는 도움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신분증이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비비를 소개하면서 그녀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참 신자로 영접하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그녀를 도와주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이들을 돕는데 헌신한 자로 천거되었다. 아마 그녀는 겐그레아의 전도자들과 다른 신자들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히 수고했던 것 같다.

16:3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데 있어 용감무쌍한 그의 동역자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전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부부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16:4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실제로 바울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했다. 사도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한 구원받은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16:5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것은 신자들의 회중이

59) (16:1) 만일 여자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직분을 의미한다면 아마도 “디아코노스”(“중”, “집사”)의 여성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집에서 모였음을 의미한다. 교회 건물은 2세기 말까지는 알려진 바 없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에 고린도에 거할 때에도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

“에배네도”는 “칭찬할 만하다”는 뜻이다. 아가야 지방의 최초의 회심자임이 틀림없는 이 사람은 그의 이름에 걸맞았다.⁶⁰⁾ 바울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일컫는다.

16:6 본장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두드러져 있는데 이는 그들의 폭넓은 활동영역을 강조해 준다(1,3,6,12절 등). 마리아는 성도들을 위해 여걸처럼 왕성하게 수고했다.

16:7 언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친척”이란 말이 그들이 사도와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동료 유대인이었음을 의미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표현이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이 유명한 사도였다는 뜻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이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16:8 이어서 사도에게 사랑받은 암블리아가 소개된다. 만일 그들이 갈보리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결코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유일한 중요한 사실이다.

60) (16:5) NU 본문에는 “아시아”로 되어 있다(그러나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던 장소였을 고린도는 아시아에 있었다).

16:9 “우르바노”는 동역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스다구”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불리웠다. 로마서 16장은 그리스도께 충성한 모든 사례에 대한 칭찬이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축소판과도 같다.

16:10 아벨레는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칭찬을 얻었다.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은 아마도 그 헤롯 대왕의 손자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16:11 “헤로디온”도 아마 노예였던 것 같다. 바울의 친척인 그는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 속한 유일한 유대인 노예였는지 모른다.

“나깃수”에게 속한 노예 중 일부도 신자들이었으며 바울은 문안 인사에 그들도 포함시킨다.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자들도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목록에 노예들이 포함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회적인 구별이 사라진다는 복스런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두 하나인 것이다.

16:12 “드루배나”와 “드루보사”는 각기 “화사한”, “사치스런”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주님을 위한 봉사에 충성을 다했다. “사랑하는 버시”는 지역교회들에서 널리 사용되면서도 주님께로 갈 때까지는 그 가치가 거의 평가되지 않는 여성 일꾼들 중 한 사람이었다.

16:13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시므온의 아들일

지 모른다(마 27:32). 그는 그의 구원에 있어서만 아니라 그리스도 인다운 인품에 있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탁월한 성도였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친어머니같은 친절을 베풀었으며 그로 인해 “내 어머니”란 친근감 넘친 칭호를 얻게 되었다.

16:14-15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와 같은(16:3,5) 가정교회에서 활동적이었던 것 같다. “빌롤로고”와 “울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는 또 다른 가정교회의 핵심요원들이었던 것 같다.

16:16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 성도들 사이에 행해지던 친근한 인사법이었으며 오늘날도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것은 온당치 못한 생각을 유발하지 않도록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일컬어져 있다. 오늘날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맞춤”대신 악수가 행해진다.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장소인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도 문안 인사에 참여했다.

16:17 사도는 서서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불경건한 교사들에 대한 경고 없이 서신을 마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당을 짓고 순진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틈을 놓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건전한 교훈과 상반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16:18 그 거짓된 교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구에 순종한다. 그리고 그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데 능수능란하다.

16:19 바울은 그의 독자들의 주님께 대한 순종심이 널리 알려진 데 대해 기뻐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들이 선한 가르침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또 악한 가르침에 순응하지 않기를 바랐다.

16:20 19절처럼 할 때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단에 대한 신속한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주실 것이다.

사도의 특징적인 축도는, 영광을 향한 여정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를 기원한다.

16:21 바울의 믿음 안의 아들이요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는 잘 알려진 사람이다. “누기오”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유대인 부모가 있다는 것 외에 알려진 바 없다. 역시 유대인인 “야손”(행 17:5)과 “소시바더”(행 20:4)는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다.

16:22 “더디오”는 바울이 본 서신을 받아 적게 한 대필자였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인 문안을 추가하는 특권을 누렸다.

16:23 신약성경에는 “가이오”란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 적어도 넷이 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언급된 그 사람으로 보인다. 그는 바울뿐 아니라 손대접이 필요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접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

의 재무였다.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19장 22절이나 혹은 디모데후서 4:20에 언급된 그 사람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구아도”는 단순히 형제로 언급되었으나 사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예요 존귀인가!

1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 지어다”는 바울의 전형적인 마감 축도이다(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 그것은 20절 후반절의 축도에 “모든 이”가 추가된 형태이다. 사실 대부분 로마서 사본들에 의하면 본문이 마지막 절이며 25-27절의 송영(送迎)은 14장 뒤에 나온다. 알렉산드리아 사본(N¹)은 20절을 생략한다. 축도와 송영 모두 본서를 끝맺는 아름다운 방법들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아멘으로 끝난다.

16:25 본서는 송영으로 마감된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그리고 그가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으로 그분의 백성을 능히 견고히 하실 하나님께 돌려진다. 물론 구원의 길은 하나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인 그에게 맡겨졌다. 한편 베드로는 그것을 유대인에게 전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인 놀라운 진리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비밀”이란 전에 알려진 바 없으며 인간 지성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알려지게 된 진리를 말한다.

16:26 여기에 언급된 비밀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분의 약속에 참여할 자가 된 진

리를 가리킨다(엡 3:6).

그것이 선지자들(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내신바 되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약의 예언적인 말씀들에 계시되었다(엡 2:20; 3:5).

그것은 사람들로 믿어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 메시지이다.

16:27 하나님만이 순전한 지혜의 근원이자 나타남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속해 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이 장려한 서신이 끝을 맺는다. 우리는 이 서신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빈곤했겠는지! 아멘.

참고 문헌

- Cranfield, C. E. B.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I(ICC)*,
Edinburgh: T & T. Clark Ltd., 1975.
- Denney, James.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1.
- Erdman, C. R.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25.
- Gahan, Charles. *Gleanings in Romans*. Published by author.
- Hodge, Charles.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1886.
- Kelly, William. *Not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G. Morrish, 1873.
- Lenski, R. C. H.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1.
- Newell, William R. *Romans Verse by Verse*. Chicago: Moody Press, 1938.
- Rainsford, Marcus. *Lectures on Romans VI*. London: Charles J. Thynne, 1898.
- Shedd, William G. T. *A Critical and Doctrin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Paul to the Romans. Grand Rapids: Zondervan, 1967.

Stifler, James M.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Logical and Historical.* Chicago: Moody Press, 1960.

Wuest, Kenneth S. *Roma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